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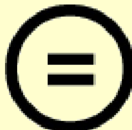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필수 부사어의 통사와 의미에 대한 연구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푸 른 솔

<국문초록>

한국어 필수 부사어의 통사와 의미에 대한 연구

김 푸 른 솔

본고는 ‘필수 부사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필수 부사어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러한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들의 유형을 나누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사어는 문장 구성에 있어 다른 주성분에 비해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어가 문장 내 동사의 완결성을 맺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을 보이는 부사어들은 내적으로 단일한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설명방식을 요구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논항(argument)의 개념을 ‘함수자(functor)-논항’과 ‘핵(head)-논항’의 짝을 이루는 것으로 분리한다. 전자는 의미론적인 논항이 되고 후자는 통사론적인 논항을 의미하게 된다. 동사에는 함수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의미론적 논항으로서 부사어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불완전동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그러하다. 다만 개별적 어휘 속성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 정도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굴다’ 류, ‘생기다’ 류, ‘삼다’ 류, ‘여기다’ 류 등이다. 이들 동사 부류는 단독으로 핵이 되기보다는, 함수자로서 의미론적 논항을 채운 후에 진정한 핵의 기반을 마련하여 바깥의 논항들을 요구한다.

둘째, 비논항으로 처리되는 필수 부사어를 ‘정보성(informativeness)’의 개념이 부가된 ‘관계적 신정보(relational new information)’로 처리한다. 이들은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이 아니므로 문장 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문법성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관심의 대상 내지 특정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이 전제될 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정보성이 작용되는 것은 대조집합의 상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한편 비논항인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들도 있다.

특정 서술어의 ‘당연논항(default argument)’ 자리로 예상되는 위치에 당연논항으로 상정되기 어렵거나 특정 맥락에서 예상치 못한 성분으로 등장한 경우가 그러하다.

주요어: 필수 부사어, 함수자, 의미론적 논항, 핵, 통사론적 논항, 관계적 신정보, 당연논항.

학번: 2013 - 20003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대상 ········· 3
1.3 선행 연구 검토 ········· 4
1.4 논의의 구성 ········· 9

2. 필수 부사어 및 논항의 특성 ········· 11
2.1 필수 부사어란 무엇인가 ········· 11
2.1.1 부사, 부사어, 필수 부사어 ········· 11
2.1.2 필수 부사어의 보충어적 특성 ········· 17
2.1.3 필수 부사어의 부가어적 특성 ········· 19
2.1.4 필수성과 수의성 판별의 어려움 ········· 20
2.2 논항이란 무엇인가 ········· 22
2.2.1 함수자-논항 관계 ········· 24
2.2.2 핵-논항 관계 ········· 26
2.2.3 논항과 부가어 ········· 27
2.3 소결 ········· 27

3. 필수 부사어의 실현 형태 ········· 29
3.1 용언의 활용형 ········· 29
3.2 조사 결합형 ········· 32
3.2.1 ‘에/에서/에게’ 형 ········· 32
3.2.2 ‘와/과’ 형 ········· 34
3.2.3 ‘(으)로’ 형 ········· 35

3.2.4 기타 ······ 37
3.3 일반부사 ······ 38
3.4 소결 ······ 40

4. 필수 부사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 ······ 42
4.1 필수 논항인 부사어의 처리 ······ 42
4.2 필수 부사어와 불완전동사 ······ 47
4.2.1 '굴다' 류 ······ 50
4.2.2 '생기다' 류 ······ 51
4.2.3 '삼다' 류 ······ 53
4.2.4 '여기다' 류 ······ 55
4.3 소결 ······ 57

5. 의미·화용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부사어 및 동사 ······ 58
5.1 필수 부사어와 정보구조 ······ 58
5.2 필수 부사어와 정보성의 부가 ······ 64
5.3 정보성의 작용 판별 - 대조집합 비교 ······ 66
5.4 필수 부사어와 당연논항 요구 동사 ······ 68
5.4.1 당연논항의 설정 ······ 68
5.4.2 정보성과 당연논항의 차이 ······ 70
5.5 소결 ······ 71

6. 결론 ······ 72
<참고문헌> ······ 76
<ABSTRACT> ······ 81

1. 서론

1.1. 연구 목적

문장 성분이 모여 의미 있는 발화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최소한의 의미 있는 발화를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분은 어떤 것이며, 그 필수성은 어떤 기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 필수성과 관련한 논항은 서술어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논항으로 처리되지 않는 성분들이 필수성을 가지는 것은 국어학의 일반적 상식과 맞지 않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 근거한 것인가? 본고는 이들에 대한 의문과 관심에서 출발한다.

종래의 국어학 연구에서 국어의 문장 성분 분류에는 문장 내의 필수성이 크게 개입되어왔다. 거칠게는 필수성분과 수의성분으로 양분되어 왔는데, 문장 내에서 구성의 핵심 성분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면 주로 그 성분의 보충어(Complement)이자 논항의 지위를 가지고, 수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부가어(Adjunct)이자 비논항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국어에는 이러한 구분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부가어이자 비논항으로 처리되는 수식 성분들 중에서도 필수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ㄱ. 철수가 시험을 잘 본 모양이다.
ㄱ'. 철수가 시험을 본 모양이다.
ㄴ. 철수는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ㄴ'. */?철수는 태어났다.[1)]
ㄷ. 사자는 6kg의 고기를 매일 섭취한다.
ㄷ'. */?사자는 6kg의 고기를 섭취한다.
ㄹ. 철수는 영희가 마음에 들었다.

1) '철수가 태어났다.'의 예문은 상대적으로 적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5.2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ㄹ'. *철수는 영희가 들었다.
ㅁ. 철수는 영희에게 귀찮게 군다.
ㅁ'. *철수는 영희에게 군다.

(1)의 각 대응쌍들에서 부사어 성분들을 소거할 시 모두 비문이 되거나 전달하려는 의미가 달라져 어색해진다. 부사어나 관형어[2]의 자격을 갖는 성분들은 수식 성분으로서 문장 내에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도 문장의 적형성(well-formednes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 사실과는 상충되는 현상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사어들도 문법성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일정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1ㄱ', ㄴ', ㄷ')의 경우 부사어를 소거해도 문장은 성립할 수 있겠으나 (1ㄱ-ㄷ)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1 ㄹ', ㅁ')의 경우에는 부사어가 소거되면 문장이 비문이 되므로 필수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논의들에서는 서술어와의 어휘 의미 관계에서 필수성을 띤 부사어를 두고 '필수 부사어(obligatory adverbials)'라는 용어를 가져오거나 혹은 '보어(complement)'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은섭(2011:89) 등에서는 이러한 필수 부사어가 (2)와 같은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일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처리를 두고서 기존의 논항과 보충어 개념이 수정되거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가 있다.

(2) 문장 성분의 성격

필수 성분	논항	보충어	주어, 목적어, 보어
수의 성분	비논항	부가어	관형어, 부사어

(1)의 예문들은 (2)에서의 이분(二分)대립적 관계 규정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논항인 필수 성분을 보충어로, 비논항 성분이 수의적으로 실현

2) 의존 명사 구성의 경우 선행하는 관형어 성분은 필수적이다.

된 것을 부가어로 보는 대립적 관점을 수용한다면, (1)의 부사어들은 필수성의 차원에서는 보충어적 성격을, 논항성의 차원에서는 부가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셈이다.

본고의 관심은 이것이 보충어인가, 부가어인가 하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다. 본고는 보충어와 부가어의 경계선에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하는 현상을 어떤 설명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간에도 필수성을 요구하는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통사적 차원에서 논항으로 처리될 수 있을 법한 부사어는 어떤 것이 있고, 논항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의미·화용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부사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필수 부사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부사어 전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분류된 필수 부사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분류된 부사어와 그것을 요구하는 동사로 우선은 그 대상을 제한하고자 한다.[3] 다만, 문법성에 기반해 필수성 및 수의성에 접근해온 기존의 연구 방법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형들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사실을 전제한 후 본고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필수 부사어를 느슨하게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형태적으로는 일반부사어와 동일하게 부사, 부사형 어미, 조사 결합형 등으로 실현이 되며, 통사적으로는 부사어의 위치를 차지한다. 단 필수 부사어는 통사·의미적으로 일반부사어와는 달리 문장 내에서 소거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게 될 것이다.

3) 서정수(1994)의 동사목록, 김경훈(1996ㄴ)에서의 필수 부사어 실현 양상 등 참고.

한편 연구 대상을 기존에 분류된 부사어와 그러한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로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보어로 보고, 어디까지를 부사어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자세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들지만, 본고의 목적에는 일반(수의적)부사어와 필수 부사어의 의미 차이와 문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앞에서 밝힌 대상들 모두를 부사어로 보는 입장에서 그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각각의 부사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 특질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출현하는지 그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2장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3. 선행 연구 검토

필수 부사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문장성분의 지위 및 명명에 대한 것, 필수성과 수의성을 논항과 관련지어 판별해보려는 시도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보충어와 부가어를 판별하는 기제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부사어의 문제와 관련해 성분론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장의 필수 성분과 수의 성분을 나누어 보려는 연구는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 일찍이 최현배(1937)에서는 문장의 성분을 ‘주요성분’, ‘종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4] 최현배(1937)에서는 문장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 으뜸 조각(주요성분)이란 것은 월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조각이니, 이것이 없으면, 월을 이룰 수 없음이 원칙이니라.
이 으뜸 조각은 다시 갈라 임자말(주어), 풀이말(설명어, 술어), 부림말(목

4) 최현배(1937)에서는 문장성분을 ‘월의 조각’, 주요성분을 ‘으뜸 조각’, 종속성분을 ‘딸림 조각’, 독립성분을 ‘홀로 조각’의 술어를 통해 설명하였다.

적어, 객어), 기움말(보어)의 네 가지로 하느니라.

(4) 딸림 조각(종속성분)이란 것은 으뜸 조각 모양으로 월의 성립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성은 없고, 다만 으뜸 조각에 붙어서 그것을 꾸미는 노릇을 하는 것(꾸밈말)이니 : 이에는 매김말(관형어), 어찌말(부사어)과의 두 가지가 있느니라(딸림 조각은 또 붙음 조각이라고도 함).

최현배(1937:748)

이에 따라 주요성분은 필수성분이 되고, 종속성분은 수의성분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분류는 학교문법이나 규범문법에서 받아들여 문장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었다. 우리말의 기본문형을 제시하는 일은 필수성분이나 논항 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고영근·구본관(2009)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골격을 제시하였다.

(5) ㄱ. 무엇이 어떠하다.
ㄴ. 무엇이 어찌한다.
ㄷ. 무엇이 무엇이다.
ㄹ.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ㅁ. ⅰ)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ⅱ) 무엇이 무엇이 된다.

고영근·구본관(2009:271)

(5)에서 보듯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을 간추려 제시하였으나 필수 부사어를 기본 골격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수 부사어를 필수성분으로 처리하는 등의 고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필수 부사어의 연구는 보어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 필수 부사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필수 부사어의 보어설과 필수 부사어의 부사어설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필수 부사어를 보어로 보느냐 부사어로 보느냐에 따라 문장성분에 대한 설명과, 문법 범주 자체에 대한 분류방법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박성민

2009:5).

필수 부사어를 보어로 본 연구에는 허웅(1983), 김민수(1982), 임홍빈(1995), 유형선(1999), 이홍식(1999) 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기심·고영근(1985), 서정수(1994)에서는 필수 부사어를 부사어의 특이한 용법으로 처리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외의 필수성분이 보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되, 부사격 조사를 취하는 필수적인 체언성분의 경우 보어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하였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 그러나 이들을 모두 보어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들을 다 보어로 처리하려면 '-(으)로, -와/과, -에(게)…' 등을 보격조사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들은 다른 서술어와 함께는 부사격로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중략…) 이런 사실은 조사 '-(으)로, -와/과, -에(게)…'가 붙어서 된 말들이 수의적인 부사어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조사는 부사격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략…) 따라서 '-(으)로, -와/과, -에(게)…' 등의 조사를 동시에 보격과 부사격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남기심·고영근(1985:258-259)

이러한 입장은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성분을 보어로 보아 광범위하게 보어를 규정하고 있는 임홍빈(1995), 이홍식(1999)와 유사하지만 이들이 필수 부사어까지도 보어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서정수(1994:704-706)에서도 필수 부사어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필수 부사어설은 의미적 내역이 불완전한 일부 동사의 앞 성분이 공통으로 지닌 기능적 특성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으며, 둘째, 보어라는 기능 범주를 따로 도입하는 부담 없이 기존의 부사어라는 개념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기술할 수 있으므로 문법 기술이 더 간결해진다는 점이다. 또 필수 부사어설을 통해 보어의 남발 현상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동일 의미기능의 선행어를 동일

범주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써 제시하였다.

본고는 보어설과 필수 부사어설에 대한 대립된 관점 사이에서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의미적 불완전성은 고정된 것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의 보어범주 간의 편차가 매우 심해 보어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필수성에 따른 성분론은 서구의 항가(項價) 이론을 접목하면서 '논항성'과 관련해 필수성과 수의성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가 더욱 깊어졌다. 필수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제로 보다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틀에 맞추어 이들을 설명하려 한 논의들에 집중하자면, 유현경(1994:193)에서는 [+필수성], [-독립성]의 기준을 준수하는 성분을 '서술논항'으로 지칭하여 필수 부사어를 위한 범주를 마련한 바가 있다. 김영희(2004:152-154)에서는 무표격이라 하여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면 보충어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가어라고 주장하였다. 또 '조사 배제 조건'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것' 분열문 구성에서 초점 성분이 논항이면 격조사는 배제되어야 하고, 초점 성분이 부가어라면 격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병규(1996:179)는 항가 의존성을 중요시 하여, 문장 요소를 "동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기술해 주기 위해 동사가 직접 요구하는 성분(논항), 동사의 어휘 의미와는 관계없이 말할이의 발화 의도에 따라 문장에 임의적으로 부가되는 요소"로 나누었다. 이재성(1999:50-52)에서는 필수 논항과 필수 논항이 아닌 것의 구별을 분열문 구성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분열문으로 전환하여 '이다' 앞에 오는 성분이 '명사+조사'의 형태라면 이는 부가어 혹은 수의 성분으로 필수 논항이 아니며, 조사 없이 '명사'만 나타나면 이는 필수 성분이면서 필수 논항이 된다.

담화·화용론적 관점에서 보충어와 부가어를 구별하고자 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남승호(2007:26-27)는 '보충질문법'을 통해 보충어와 부가어를 구분하고 있다. 담화 상황에서 되묻는 질문의 쌍을 통해 완성된 정보 단위(complete information unit)[5]에 포함되는 성분은 필수성분이며, 그렇지 않고 추가로 포함되는 성분은

수의성분이라고 본 것이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정택(2006)에서는 '모습(figure)과 바탕(ground)' 이론을 수용해 필수성에 의한 직관은 '모습'의 골격을, 그 외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수의적 요소로 인지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필수성과 수의성의 판별은 논항을 세분하는 입장이나 담화·화용론적 입장, 인지언어학적 입장 등에 의해 보충어와 부가어를 판별하는 기제로 이해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논항성에 대한 논의는 논항이라면 보충어로, 비논항이면 부가어로 처리하고 있으며 필수 부사어에 대한 고려는 전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수성분인 논항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논항의 의미론적 개념과 통사론적인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필수 부사어를 통사적 구조에 의해 설명하는 쪽으로 논의가 편중되어 있는데 필수 부사어로 명명되는 것들이 저마다 이질적인 특성과 다른 설명 방식을 요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층위에 두고 설명하지 않고 문법적인 차원과 의미·화용적인 차원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수 부사어 자체에 관한 논의는 김경훈(1996ㄱ), 선지성(2005), 박성민(2009) 등이 있다. 김경훈(1996ㄱ)은 부사어의 형태를 가진 요소가 문장 내에서 부가어로 쓰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논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필수 부사어가 되는 요소가 용언의 보어로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선지성(2005)에서는 부사어 자체가 보충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의 논항성이 부사어의 보충어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그 결과 부사어는 동사의 하위범주적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므로 이들 부류를 제시한 후 동사의 논항 구조 속에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필수 부사어 형태가 어떻게 실현되며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의 부류를 태도, 변화, 판단,

---

5) 하나의 발화가 완성된 정보 단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발화가 하나의 사실이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남승호 2007:26). 이러한 입장은 통사적 근거로써 논증하기 어려운 성분들의 필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고가 다룰 5장, 특히 정보구조와 관련한 지점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

피동형 일부로 나누었다. 하지만 통사적 층위로 설명될 수 있는 필수 부사어와 맥락에 의해 좌우되는 특정의 필수 부사어가 매끈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박성민(2009)에서는 필수 부사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에'형, '와/과'형, '-로'형이 갖는 의미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필수 부사어를 형성하는 범주가 조사구에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또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 부사어가 수의적인 부사어와 형태를 같이 하면서도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1.4. 논의의 구성

2장에서는 우선 필수 부사어에 대한 일반론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필수 부사어를 문법구조에 있어 보충어 혹은 부가어로 처리하는 입장에 대해 검토한다. 한편 논항성을 결정짓는 요소인 필수성과 수의성의 기제가 필수 부사어에는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논항의 지위를 따지는 것의 어려움을 밝힌다. 그리하여 박진호(1994)의 견해를 따라 필수 부사어의 일부가 논항(의미론적 논항)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3장에서는 부사어의 실현에 대해 고찰한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모든 부사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수 부사어로 판단되는 환경과 조건을 따져 기술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필수 부사어가 어떤 형태로 실현이 되며 각각이 어떤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부사어를 의미론적 논항으로 요구하는 동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다룰 부사어들은 엄밀히 말해 논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이 논항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적 자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의 부사어를 요구하게 되고 양자가 결합할 때 동사는 완전한 핵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한다.

5장에서는 4장의 방식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사어와 동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비논항으로 처리되는 부사어들이 정보구조상 관계적 신정보의 위치에서, 또 한편으론 특정 맥락 내지 배경에 의해 당연논항의 자리에 유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를 보인다. 이들 역시 소거되면 문장의 진의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비문이 되므로 필수성의 영역에 들 수 있다.

6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2. 필수 부사어 및 논항의 특성

2.1. 필수 부사어란 무엇인가

2.1.1. 부사, 부사어,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란 과연 무엇일까? 필수 부사어를 규정하기에 위해서는 먼저 부사어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부사어와 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본고에서는 어느 범위까지를 부사어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 부사어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부사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보자. 부사는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class), 즉 품사(parts of seech) 중의 하나이다. 고영근·구본관(2009)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품사 분류
ㄱ.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ㄴ. 용언: 동사, 형용사
ㄷ. 수식언 : 관형사, 부사
ㄹ. 관계언: 조사
ㅁ. 독립언: 감탄사

이는 각 품사의 '기능(function)'과 '의미(meaning)'라는 기준에 따른 분류로서, 부사는 이중 수식언 부류에 속하는 품사이다. 무엇보다 품사는 단어를 분류대상으로 삼으므로 부사는 단어가 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능이 (1)과 같이 특정 품사로 대변되는 어휘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선지성 2005:3). 또한 품사란 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품사는 어휘적인 개념이며, 부사는 단어가 된다. 그

렇기 때문에 단문 내에서 각각의 언어 단위가 가지는 기능적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품사뿐만 아니라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영근·구본관(2009)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문장 성분 분류
ㄱ.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ㄴ.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ㄷ. 독립성분: 감동어, 호격어, 접속어, 제시어

부사어는 문장 성분의 하나이다. 문장 성분의 분류는 단어 혹은 구가 문장 내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반영한다. 물론 품사와 문장 성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사 이외에도 부사어는 용언의 활용형, 부사격 조사와의 결합, 부사성 의존명사와의 결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반면 품사로는 부사에 속하지만, 그것을 부사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ㄱ. 지난 방학 동안 운동을 아주 많이 했어.
ㄴ. 그 사람은 이 도시 사람들이 모두 알 만큼 아주 부자야.

(3ㄱ-ㄴ)에서 '아주'는 둘 다 품사가 부사이지만 (3ㄴ)의 경우에는 명사구를 수식하므로 관형어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품사와 문장 성분은 서로 별개의 층위에 속한다. 하지만 김경훈(1996ㄱ)의 지적대로 품사와 문장 성분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는 있는 듯하다.[6] 그러므로 본고는 어휘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방점을

---

6) 김경훈(1996ㄱ)에서는 부사의 논의에 있어 부사와 부사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하여 품사와 문장성분은 별개의 개념이고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하지만 이 둘이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밝혔다. 문장 속에서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관계를 문장성분만을 이용해 기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바가 있다. 결국 부사와 부사어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두어 대상을 조명할 것이며, 또한 부사 이외에 용언 활용형이나 조사 결합형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므로 '부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문장 성분으로서의 '부사어'는 다양한 구성을 이룬다. 전통적으로는 어휘 층위에서의 부사 및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제한하는 문장 부사로 나뉘어왔다. 본고에서는 부사어의 범주가 어휘 범주인 것, 구나 절 범주인 것, 문장 범주인 것으로 구분하는 임홍빈·장소원(1995)의 검토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부사어의 범주 및 그 수식 범위
ㄱ. 부사어의 범주 : 부사, 부사구, 부사절
ㄴ. 부사어의 수식 범위
i) 부사, 명사(구)
ii) 어휘 범주 동사, 중간 범주 동사구, 최대 범주 동사구

(4)는 이윤하(2007)의 부사(어)구 수식 구성의 실제를 보이기 위해 제시한 범주이다. 중간 크기의 범주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의 중간적 크기가 있는 부사어를 상정한 것이다. 부사구나 부사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필수 부사어' 역시 부사어의 범주에 드는 만큼 이를 고려해 문법 기술을 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부사형 어미인 '-게'의 경우 그것의 성격과 용법에 관련하여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3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제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필수 부사어'는 '부사어'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논의하겠다.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부가어로서 서술어를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적형성(well-formedness)을 따져보는 논의에서 부사어는 큰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 등장하는 부사어들은 사정이 다르다.

(5) ㄱ. 철수는 영희에게 귀찮게 군다.
ㄱ'. *철수는 영희에게 군다.

ㄴ.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
ㄴ'. *철수는 영희를 삼았다.

(6) ㄱ. 철수는 시험을 괜찮게 보았다.
ㄱ'. */?철수는 시험을 보았다.
ㄴ. 비가 와서 소풍은 다 갔다.
ㄴ'. */?비가 와서 소풍은 갔다.

(5)의 예문에서의 부사어는 문장의 적형성 측면에서든, 문장의 진의(眞意)를 전달하기 위해서든 부사어는 소거될 수 없다. 서술어와 특정한 부사어가 공기(共起)해야 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들이다. 이런 예들은 서술어의 내적 불완전성을 메우기 위해 통사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로 보겠다. 한편 (6)의 예문도 부사어가 소거되면 비문이 되거나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다른 문장이 완성된다. 부사어가 소거될 시 아예 비문이 되어버리는 (5)의 예문과는 사정이 또 다른 것이다. 이것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자리에 들 수 없지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이 역시도 '필수 부사어'의 범주에 넣어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7) 박소영(2003:118) 예문
ㄱ. 돌이 굴러가다.
ㄴ. 사업이 {*∅, 그럭저럭} 굴러간다.

(7)은 박소영(2003)의 예문을 가져온 것이다. 구체성 명사가 주어로 등장한 (7ㄱ)과는 달리 추상성 명사가 주어로 등장한 (7ㄴ)은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동사가 주어 등이 가진 구체성이나 추상성에 따라 동사의 자립성이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박소영(2003)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동사는 의미 탈색(semantic bleaching)을 경험함으로써 의존적이 되고, 그 결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5-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필수 부사어'는 '필수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질적인 성질을 보이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의 자립성과 의미탈색 내지 의미확장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필수 부사어의 '필수성'은 통사적인 필수성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미적인 필수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단일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 아님에는 분명하지만 일단은 필수 부사어의 범주 안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7]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필수 부사어는 '의미론적 논항'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수 부사어의 필수성은 부사어의 특정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의 형태란 확실히 어떤 것이라고 미리 전제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는 일이 온당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본고는 3장에서 다룰 필수 부사어의 형태는 모든 필수 부사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동사, 간략히 설명하자면 의미적 자립성이 완연히 떨어지는 동사에 의해 필수성이 확보된 경우의 부사어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4장에 의해 어떤 동사들이 필수 부사어로 간주되는 이들 성분을 강하게 요구하는지 밝히게 될 것이다.

---

7) 박소영(2003:120)에서는 함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예문과 그렇지 못한 예문을 들었다.

ㄱ. 현이가 빨리 달렸다. → 현이가 달렸다.
ㄴ. 토끼가 거의 죽었다. ↛ 토끼가 죽었다.

후자인 부사어에 필수성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지, 논항성을 가진 부사로 보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진 바가 있다.

한편, 선지성(2005)는 필수 부사어의 개념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해석했다.
(1) 통사적 필수 부사어 : 서술어를 통사적으로 포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부사어
(2) 의미적 필수 부사어 : 서술어를 의미적으로 포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부사어
그에 따르면 통사적 필수 부사어는 반드시 의미적 필수 부사어가 되지만, 의미적 필수 부사어는 항상 통사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필수성'을 통사적 필수성과 의미적 필수성으로 가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부사어가 논항성을 가지는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고 논항이 되지 못하는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장에서 다루는 부사어도 필수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구문에 대한 연구는 유현경(2005)에서 자세히 밝혀진 바가 있다. 이 논의를 따르자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구문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소절 구성처럼 복합술어로 기능하는 부류이고, 둘째는 문장의 내용절에 해당하여 대상역을 받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의미적 자립성이 떨어지는 서술어에 의해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부사어 성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므로 전자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8] 그에 따라 필수 부사어를 이끄는 부사형 어미의 범주에서 '-도록, -면, -어서, -고, -며'와 인용절을 이끄는 '-려고' 등은 일단은 배제하도록 한다. 이들은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는 성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필수 부사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수성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8) ㄱ. 우리는 종교 수업을 <u>듣도록</u> 강요당했다.
ㄱ'. 우리는 종교 수업을 강요당했다.
ㄴ. 사임당은 남편에게 옳은 길을 <u>걷도록</u> 권고했다.
ㄴ'. 사임당은 남편에게 옳은 길을 권고했다.
ㄷ. 장군은 전군에 비상경계에 <u>들어가도록</u> 명령했다.
ㄷ'. 장군은 전군에 비상경계를 명령했다.
(이윤하 1005:170)

(8)의 이윤하(2005)의 논의 중 '-도록'에 관한 필수 부사어의 용례를 가져온 것인데 이들의 부사어 성분을 소거하면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필수 부사어들은 소거될 경우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8)의 예문처럼 그럭저럭 적형식의 문장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기대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부사어의 특정 형태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서술어의 자립성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8)도 필수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철수가 영희에게 귀찮게 굴다.'에서의 '귀찮게'와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8) 통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필수 부사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필수 부사어로 간주되는 부사어는 통사적 숙어 내지 특정 구문에서 필수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Ka, Lina(2011)은 한자어 ‘別’을 대상으로 하여 부사 ‘다’와 결합된 구문의 통사적 특성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별 ~ 다’ 구문은 ‘더 이상 이상한/특이한 N이 없다’라는 영탄의 기능을 가진다. 이런 구문에서의 부사 ‘다’는 ‘별’과 공기해야 하는 요소이므로 소거될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이 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6ㄴ)의 ‘다’는 [X은 다 Y했다] 구문으로, ‘X를 Y하는 것은 글렀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구문 차원에서의 발생하는 필수 부사어는 특수한 사례라고 보아 필수성을 인정은 하되 본고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필수 부사어의 범위를 좁히는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이제 다음 절을 통해 필수 부사어가 보충어와 부가어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이겠다. 이것은 필수 부사어의 논항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2.1.2. 필수 부사어의 보충어적 특성

Somers(1987:24)는 동사 중심의 문장 형성에 있어 문장성분을 의무적인 것과 기대적인 것, 그리고 수의적인 것인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결국 문장성분에 개입하는 성분들이 필수와 수의인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문장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계층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Somers(1987:23-28)에서는 문장성분을 참여 정도에 따라 여섯 단계로 구분한 바가 있다.[9]

(9) Somers(1987)의 문장성분 단계

절대적 보충어(integral complement)

의무적 보충어(obligatory complement)

수의적 보충어(optional complement)

9) 이것은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에 어느 정도 의존적인가를 따져보는 것으로, 결국은 동사와의 통합의 긴밀도(intimacy)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장성분의 동사 의존성을 의미적인 면과 통사적인 면, 그리고 화용적인 면에서 모두 분석하기를 시도하였다.

중간 요소(middle)
부가어(adjunct)
극-주변어(extra-peripheral)

(10) Somers(1987:190)에 의한 문장성분의 필수성 정도
ㄱ. Nick unexpectedly smashed the vase with a hammer yesterday.
ㄴ. 극-주변어: unexpectedly
부가어: yesterday
중간 요소: hammer
보충어: Nick
보충어: vase
서술어: smash

한편 우형식(1994)에서는 '-에' 명사구가 보충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Somers(1987)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국어의 사정에 맞게 예문을 제시한 바가 있다.

(11) 우형식(1994)
ㄱ. i) 1945년에 우리는 식민지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ii) 홍수에 집이 물에 잠겼다.
ㄴ. 동사와의 긴밀도[10] : 종지부를 > 식민지 역사에 > 1945년에
집이 > 물에 > 홍수에
ㄷ. 문장 성분 : 종지부를 > > 식민지 역사에 > > 1945년에
집이 > 물에 > > 홍수에 >
절대적 의무적 수의적 중간 수의적
보충어 보충어 보충어 요소 부가어

10) 문장의 참여 정도를 판별하는 문제는 Somers(1987)의 소거, 대치, 대동사화, 환언 시험 등이 사용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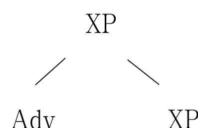
여기서 의무 내지 수의적 보충어, 중간 요소로 처리되는 성분들은 동사와의 긴밀성이 다른 부가어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필수 부사어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간 요소의 성격이 어떠한지, 보충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사어들이 모두 부가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점[11]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외에도 서태룡(1998), 임홍빈 외(1995), 홍재성(1987) 등에서 서술어인 핵(head)가 필요로 하는 요소라면 모두 보어가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보어로서의 표지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들도 서술어의 요구에 의해 보충어의 범주에 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편은 보어 범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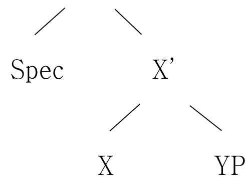
2.1.3. 필수 부사어의 부가어적 특성

X-bar 이론의 도입 이래로 부사어가 부가어의 위치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부사어는 동사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Chomsky(1981)는 부사어를 최대투사범주에 부가되는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는 필수 부사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부사어를 부가어로 처리하는 견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12)



11) 필수 부사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 자체가 보충어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은 McConnel-Ginet(1982), Stroik(1987, 1990), Larson(1988) 등이 있는데 이들은 부사는 동사의 가장 내부에 놓여있는 보충어라 주장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부사어는 특정 범주의 최대 투사(XP) 혹은 중간 투사(X')와 결합하여 동일 범주의 최대 투사, 중간 투사를 만들어낸다. 부가어는 후행 통사범주를 변화시키지 않고 구조 확장을 경험하는, 즉 수의적 통사단위라는 점에 주목해 볼 때 부가어는 핵 성분이 이루는 통합관계에서 보충어나 지정어와는 별개의 구조 확대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최웅환(2013:280)에서 관형사나 부사는 의미적으로 수식어(modifier)의 기능을, 통사적으로는 부가어(Adjuncts)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식'과 '부가'의 개념 및 수용양상을 관찰하면, 그 둘이 준거를 달리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식=부가'라는 인식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수식=부가'라는 인식이 더 유지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바로 필수 부사어가 그러하다.

2.1.4. 필수성과 수의성 판별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논항으로 처리되는 언어 요소들은 필수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논항을 기준으로 필수성을 따져보는 문제는 과연 합당한 것인가.

(13) ㄱ. 철수가 시험을 잘 본 모양이다.
ㄴ. 철수가 영희를 귀찮게 군다.

(13ㄱ)의 '보-'는 일반적으로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잘'은 논항으로 보기 어렵다. (13ㄴ)의 '귀찮게'는 유형선(1999), 이은섭(2011) 등에서 논항이 아니라고 하나, 문장 내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본고는 이들 논의에서 비논항으로 처리되는 '귀찮게' 등을 논항으로 간주한다.

(14) ㄱ. 나는 어제 자동차로 학교에 갔다.
ㄴ. 나는 어제 자동차로 갔다.
ㄷ.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ㄹ. 나는 학교에 갔다.
ㅁ. 나는 갔다.

(14ㄱ)에서 필수적인 논항은 '나는' 하나만이다. 이것에 따라 '나는'을 제외한 나머지를 필요하지 않은 성분으로 처리를 했을 때 (14ㄴ-ㅁ)이 (14ㄱ)과 같은 의미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비록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맥락에서 초점이 되는 경우라면 수의적으로 간주되는 성분들도 얼마든지 필수성을 가질 수 있다. (15)와 같은 예가 그러하다.

(15) ㄱ. 너 어제 '어떻게' 학교에 갔니?
ㄱ'. 자동차로 (갔어)
ㄴ. 너 어제 자동차로 '어디에' 갔니?
ㄴ'. 학교에 (갔어)

(15)에서의 예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바의 수식어의 수의성은 먼저, 거칠게 합의된 근간성분을 토대로 하여 그에 부합하지 않는 단어류에 대해 수의성을 부여한 것이다. 즉 어떤 특정 성분과의 관계적 관점에서 요구되거나 판단된 수의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격 조사의 실현 형태가 갈림으로써 각기 다른 범주로 설정되는 경우도 문제라 할 수 있다.

(16) ㄱ.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 <보어?/필수 부사어?>
ㄴ.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를 삼았다. <목적어>

ㄷ.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 삼았다. <?>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필수성과 수의성의 구별을 문법 수준만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문맥이 제거된 문장에서 어느 요소가 필수적이냐 수의적이냐를 논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필수성이 보충어와 부가어의 구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어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찰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논항성이나 문장성분의 지위로 필수성을 부여하는 일이 그리 확실한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성분의 필수성과 수의성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핵 성분이 요구하는 논항적 정보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필수성의 전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2. 논항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필수 부사어의 몇 가지 예를 통해 논항 여부를 필·수의성과 동궤에 놓는 일이 그리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사어는 논항(argument)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논항이란 무엇이며, 본고에서 부사어를 논항의 범주에 넣기 위해 논항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접어들게 된다. 문법 기술의 측면에서 논항은 흔히 쓰이는 술어이지만 논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논항이 주로 연구자의 직관[12]에 의존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기존 연구들에서 논항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한다.

---

12) ㄱ. 논항구조에 관한 우리의 이론은 대체로 무엇이 무엇의 논항이고 아닌지에 대한 분석되지 않은 직관(unanalyzed intuition)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Riemsdijk & Williams 1986:240)
ㄴ. 비록 그 개념의 경계선과 그것의 정확한 성격은 아직 합의된 바 없고 또 그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지만, '논항'이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분명한 내용을 지닌다.(Williams 1994:25)

(17) 논항의 정의[13)]

ㄱ. 논항이란 술어(predicate)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make'의 의미 구현을 위해서는 '만드는 자'와 '만들어지는 대상'이 꼭 필요한데 이들을 논항이라 한다. (정태구 2001:6)

ㄴ. i) ii)과 같은 논리적 표시법에서 서술어 'imitate'는 m과 p로 표상되는 두 개의 논항을 갖는다. (Haegeman 1991:35)

ii) Maigret imitates Poirot.
A(m, p)
where A='imitate', m='Maigret', p='Poirot'

ㄷ. 논항은 '주어(subject)'와 '보충어(complement)'를 말한다. (Radford 1988:371)

ㄹ. 논항은 논리형식부에서 의미역이 부여되는, 곧 의미역 관계에서 명사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가정되는 것이다. (Chomsky1981/이홍배 역1987:54)

ㅁ. 핵과 결합 가능한 성분을 '논항'이라고 한다. (임홍빈·이홍식 외 2002:103)

ㅂ. i) 어떤 술어의 필수 논항(true argument)은 그 술어가 사용된 발화가 완성된 정보 단위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논항을 말한다.

ii) 하나의 발화가 완성된 정보 단위(complement information unit)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발화가 하나의 사실이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남승호 2007:26)

(17ㄱ-ㄴ)은 논항을 의미론적인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술어에 요구되는 언어 요소를 '의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17ㄴ)은 논리언어학적인 수식을 반영해 설명했지만 근본적으로 (17ㄱ)과 주장하는 바가 같다. 반면 (17ㄷ-ㅁ)은 논항을 통사론적인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17ㄷ)은 '보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야만 논항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17ㄹ)은 의미역을 고려해

---

13) 논항의 정의와 관해서는 이선웅(2012:216) 참고.

(17ㄷ)보다 한층 더 나갔지만 이에 따르면 '부사어'는 논항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7ㅁ) 역시 지나치게 통사론적인 정의에만 그쳐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7ㅂ)은 의미·화용론적 관점에서 '정보단위(information unit)'의 개념에 기초하여 논항을 정의하였는데 '완성된 정보 단위'라는 정의에 피정의항이 들어가 정의가 불충분한 면이 있다.

논항에 대한 정의가 의미론적 혹은 통사론적 등으로 어느 한쪽에 국한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논항의 개념에서 본고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만 한다. 보다 완벽한 논항의 정의를 위해서는 통사론적인 개념과 의미론적인 개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1. 함수자-논항 관계

박진호(1994:46)는 어휘 의미 표상은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사건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빈 자리(slot)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언어 표현을 함수자(functor)라고 하며, 함수자의 의미 표상 속에 내재된 빈 자리의 수를 그 함수자의 자릿수(valency)라고 하였다. 함수자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요구되는 언어요소는 '논항'이 된다. 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어서 범주 문법(categorial grammar)[14]에서처럼 논항을 의미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

14) 범주문법
-함수 적용(function application)
a. X/Y + Y ⇒ X : 보충어
b. X/X + X ⇒ X : 부가어
f + a ⇒ f(a)
범주문법에서는 함수자(functor)와 논항(argument)사이의 관계로 보충어와 부가어를 정의한다. X와 Y는 같은 범주가 아니어야 하고 X/Y가 Y와 결합하여 X를 만들 때 X/Y가 핵어이고 Y가 보충어가 된다. 그리고 X/X는 X가 결합하여 X를 만들면서 X에 대한 수식기능을 하므로 X/X는 부가어가 된다. 따라서 X/Y가 Y와 결합하는 것은 포화(saturation)과정이고 X/X가 X와 결합하는 것은 수식(modification)과정이 된다. 범주문법에서는 부가어의 필수성(obligatoriness)과 수의성(optionality)을 표현들의 범주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어떤 언어 요소가 결합되는 이유엔 각 언어 요소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언어 요소들을 의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요소가 의미론적인 의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요소가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완전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동사 '굴-'은 함수자가 되며 '귀찮게' 등으로 대의되는 언어 요소는 논항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귀찮게'를 부가어이면서도 필수적 성분이라는 모순으로 설명한 기존 논의들에서 벗어나, 이 논리를 따르면 '필수성=보충어=논항'이라는 등식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사어로 함수자로 할 것인가, 동사를 함수자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받아들게 된다.[15] 사건의미론(Event Semanties)에서는 부사어를 사건 혹은 그 하위 사건에 대한 서술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사어와 피수식어의 의미가 결합하는 과정은, 부사어가 함수자로서 사건을 논항으로 삼는 과정이 된다. 의미의 합성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쪽이 함수(부사어)이고, 그에 요구되는 쪽인 논항이 되어 이들이 결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van Kampen(2006: 242)에서는 서술어(predicate)가 그 지칭하는 주어를 자신의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라 보았다. 서술어 함수에 주어 논항을 적용한 것은 진술(ststement) 또는 명제(proposition)와 등가의 단위가 되며,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entity)로서 진리치를 가지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서술어는 주어 논항을 진리치를 가진 진술 위로 투사한다. 함수로서 서술어는 속성을 표상한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본고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함수자를 정할 때 그에 대응되는 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두 언어요소가 결합해 상위의 언어 단위를 구성할 때 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쪽이 핵(head)이 되고, 핵과 함수자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 핵과 함수자가 일치할 때의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론적 논항으로

15) 선지성(2005:25-30)에서 부사어를 함수자로 삼는 유형이론(type theory)이나 사건 의미론의 부사어 분석과 부사어를 함수자로 놓는 연구들이 가진 문제점을 자세히 짚은 바가 있다.

실현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사어보다는 동사에 함수자의 자리를 주는 것이 온당할 듯싶다. 또한 부사어를 함수자에 놓는 것은 사건 의미론의 이론 체계를 기술하는 데에 수월할지는 모르나 직관적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동사가 부사어 등의 논항을 선택한다고 보는 입장이 직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직관에 따를 경우 부사어를 함수자의 자리에 두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2.2.2. 핵-논항 관계

함수자-논항의 관계는 의미론적인 차원만을 위해 마련된 개념이다. 그런데 논항이 통사론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미적 개념인 '논항'이 어떤 방식으로 사상(mapping)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Chomsky(1981)에서는 논항을 통사적 핵(head)과 대를 이루는 개념으로, 어휘부(lexicon)의 논항구조는 통사부에 그대로 투사(project)된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논항이 가지는 의미적 필수성이 통사적 필수성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Chomsky(1981)는 '논항이란 논리부(Logical Form)에서 의미역이 부여되는, 곧 의미역 관계에서 명사자격을 받는다고 가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부사어가 논항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박진호(1994)를 받아들인다. '함수자-논항'과 '핵-논항'의 용법으로 논항의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다. 함수자와 대응하는 논항은 의미론적인 논항이고, 핵이나 부가어에 대응하는 논항은 통사론적인 논항이 된다. 핵과 함수자가 유기적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별개의 개념이므로 핵과 함수자는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핵과 함수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보자. 함수자와 핵이 일치할 때 함수자에 대응하는 논항은 핵에 대응하는 것처럼 통사론적인 논항이 된다. 또 핵인 함수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비핵은 통사론적으로 부가어가 된다. 본고가 뒤에서 다루게 될 4장에서의 부사어들은 논항, 더 자세히는 의미론적 논항에 대한 것들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핵과 함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할까? 통사론적 논항은 반드시 핵에 대해 비핵의 관계를 갖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핵이 함수자이고 핵이 그 의미론적 논항이 되는 경우 그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론적 논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먹은 밥'에서의 '밥'(핵)은 의미론적으로는 '먹은'(비핵)의 논항이지만 통사론적으로 '먹은'의 논항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논항은 핵에 대응하는 것과, 함수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층위가 갈린다.

2.2.3. 논항과 부가어

한 문장의 친소 관계를 따져 보는 IC 분석 등을 비롯한 통사기술은 보통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매 관계에 있는 언어요소는 '밥 먹-'과 '빨리 먹-'의 두 유형으로 갈린다 할 수 있다. '밥 먹-'의 경우 비핵이 핵의 의미론적으로 불충분한 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의 비핵은 핵의 논항이 된다. '빨리 먹-'에서의 비핵은 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핵이 요구하지 않음에도 특수한 정보를 더 얹기 위해 선택적으로 덧붙는 것이다. 이럴 때의 비핵은 핵의 부가어(adjunct)가 된다. 문장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분명히 하기 위한 수식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빨리 먹-'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어는 부사어를 포함한 상위의 개념이지만 모든 부사어가 부가어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2.3. 소결

본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몇 가지의 설정과 개념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품사와 문장성분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사와 부사어의 관계에서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부사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

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필수 부사어는 단일한 성질의 집합이 아니다. 필수 부사어는 서술어의 내적 불완전성을 메우기 위해 통사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인 경우, 통사적 논항은 아니지만 부사어가 소거될 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동사가 의미탈색이나 의미확장 등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따로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모두가 필수 부사어의 범주를 이룬다고 보았다.

한편 필수 부사어는 관점에 따라 보충어적인 분석과 부가어적인 분석 모두에 걸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성을 근간으로 하여 보충어 자격 내지 논항성을 부여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보충어 자격 내지 논항성에 따라 필수성이 있다고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필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논항은 통사론적인 개념과 의미론적인 개념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고가 도입한 논항은 함수자에 대응되는 의미론적 논항과 핵에 대응되는 통사론적 논항으로 층위를 달리 가진다. 핵과 함수자가 일치하는 경우, 함수자 핵의 의미론적 논항은 그대로 통사론적 논항으로 실현된다. 단 함수자는 위치는 부사어에 있지 않고 동사(서술어)에 있다.

3. 필수 부사어의 형태

필수 부사어가 실현되는 양상과 격조사 결합형에 따른 의미분화 특성을 잘 보여준 기존 연구로는 유현경(2005), 김경훈(1996ㄱ), 이홍식(1999)[16], 박성민(2009) 등이 있다. 본장에서는 이들 논의를 참고하여 필수 부사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이도록 하겠다.

3.1. 용언의 활용형

부사어가 실현되는 방법에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인 '-게'나 '-어'가 결합되는 것이 있다. 그 중 '-게' 활용형은 필수 부사어의 범주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며,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런데 이들의 문장성분은 동일하게 '부사어'로 부여될 수 있으나 면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게'는 유형화될 수 있다. 유현경(2005)에서는 '-게'를 부사절을 이루는 어미로 보아 두 가지로 유형화한 바가 있다. 첫째는 소절구성처럼 서술어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둘째로는 문장의 내용절처럼 다른 명사구들에 대상역을 받는 유형이 그러하다.

우선 '-게' 활용형의 구문들을 살펴보자.

(1) ㄱ. 철수는 귀엽게 생겼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귀찮게 군다.
ㄷ. 구름이 붉게 변했다/되었다/물들었다.
ㄹ. 어떤 생명이든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ㅁ. 미세먼지가 끼어서 산이 멀게 보인다.

(1)에 제시한 것은 용언의 어간에 '-게'가 결합된 형태인 부사어가 문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용례이다. (1)에 등장하는 부사어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종류

16) 그러나 이홍식(1999)는 이러한 조사결합형을 필수 부사어가 아닌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의 서술어와 함께 나타나 결과 상태나 양태의 의미를 담당해 서술어의 의미를 완전히 메우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게'의 문법적 정체성을 따져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유현경(1995)에서는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형 어미의 종류에 '-게'를 설정하여 부사절을 요구하는 동사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게' 부사절을 요구하는 동사 목록

결론짓다, 굴다, 끌다, 나오다, 나타나다, 다가오다, 대접하다, 대하다, 들리다, 말하다, 바꾸다, 바뀌다, 변색되다, 변색하다, 변하다, 보다, 보이다, 빠지다, 생각되다, 생각하다, 생기다, 쓰다, 알다, 여겨지다, 여기다, 이르다, 이르다, 지내다, 지칭되다, 처신하다, 추정하다, 치다, 치부되다, 탈색되다, 헐뜯다

한편 우순조(1997)에서는 '-게'의 문법 범주를 문장 단위의 통사적 층위에 결합하는 형태소로 본 바가 있다. 그리하여 '-게'와 직접 결합한 용언은 주문장의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주어에 대한 서술을, 주문장의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에 대한 서술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목적격 조사가 활용된 명사구가 부문장의 주어가 된다고 한다면, '-게' 형태의 필수 부사어 구문에서의 '을/를'이 '이/가'로 교체되지 않는다.[17]

(2) ㄱ. 철수가 영희를 귀찮게 굴었다.

ㄴ. *영희가 귀찮게 굴었다.

---

17) 선지성(2005)에서는 전체 문장을 피동문으로 전환할 경우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예를 든 점이 눈에 띈다.

예) ㄱ.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ㄴ. 모든 생명<u>이</u>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점은 목적어가 부문장의 주어로 분석할 근거가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주문장의 목적어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또 타동사 구문에서 '-게' 활용형이 목적어의 서술어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예도 있다. (3)과 같은 예에서 '귀찮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3)과 같이 주어와 관련된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에서만큼은 '-게'를 선지성(2005)에서처럼단문 구조의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게'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종희(1991)은 부사절과 부사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문장의 기능 범주에 주목하는 만큼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3) ㄱ. 옆집 꼬마가 귀찮다.
ㄴ. 내가 귀찮다.

용언의 활용형에는 '-아/어'도 있다. 그런데 이들 활용형은 '-게'에 비해서는 제한된 분포를 보이고, 또 공기하는 서술어도 주로 '보-'의 피동형인 '보이-' 정도로 파악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18]

(4) ㄱ. 철수가 오늘따라 <u>멋져</u> 보인다.
ㄴ. 철수의 옷이 <u>깨끗해</u> 보인다.
ㄷ. 영희가 결혼으로 <u>행복해</u> 보인다.

한편 용언의 활용형은 아니지만 용언의 관형사절과 의존 명사가 합쳐서 부사어를 이루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예에는 '-ㄴ/ㄹ 듯(이)', '-ㄴ/ㄹ 척', '-ㄴ/ㄹ 양' 등이 있다.

18) '-어 보이-'를 핵으로 하는 보조 용언 구성인 [[철수가 오늘따라 멋지-]vp -어 보이-]Aux의 구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아/어-' 부사형이 (1)에 제시한 '-게' 부사형과 동일한 층위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통사 단위가 분석 단위와 기능 단위로 나뉠 수 있다는 임동훈(1995)의 입장을 경청하되 일단은 본고의 방식대로 분석하겠다.

(5) ㄱ. 철수는 쌀을 내어놓는 것이 아까운 듯이 굴었다.
ㄴ. 소음으로 영희가 괴로운 척 했더니 철수가 작업을 멈추었다.
ㄷ. 사람들 앞에서 철수는 아버지의 친자식인 양 행동했다.

3.2. 조사 결합형

다음은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구문 내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구성에는 대표적으로 '에', '에서', '에게', '와/과', '(으)로' 등의 격조사[19]도 있지만 '처럼/ 같이' 등의 구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2.1. '에/에서/에게' 형

이 절에서 다룰 조사결합형은 1차적으로 '처소'와 관련이 있는 부사어들을 만들어낸다. [도착점], [지향점] 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공간], [시간], [원인]의 추상적 범위로 확대될 수도 있다. 우선은 처소와 관련된 '에' 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6) ㄱ. 철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ㄴ. 영희는 미국에 산다.
ㄷ. 철수는 학교에 도착했다.
ㄹ. 편집국은 오후 6시에 마감을 한다.
ㅁ. 어젯밤 바람에 낙엽이 모두 떨어졌다.[20]

---

19) 박성민(2009)에서는 필수 부사어의 실현 형태 중 '에'는 [도착점], [목표점]을, '로'에는 [변화결과]를, '와/과'는 [공동행위의 대상]이라는 의미특성을 내세워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 이홍식(1999)에서는 '원인'의 의미가 사태와 사태의 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에 모든 사태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므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나는 바람 소리에 놀랐다.', '철수는 비싼 책값에 어리둥절했다.' 등과 같이 경험주의 정서적 반응을 자극하는 의미는 서술어에 중요한 관련항이 되기 때문에 서술어의 성립에 대한 요건으로 간주하여 이에 한해 '에' 성분을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고는 이홍식(1999)의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

'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6)처럼 대상의 고정된 위치나 대상을 향한 목적지 등의 장소와 관련한 기능을 한다. 서술어의 의미론적 속성이 장소와 관련된 경우라면 '에' 형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 형은 앞서 밝힌 대로 공간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아서 (6ㅁ)처럼 시간적 범위로 확대될 경우에도 쓰이기도 하고 (6ㅂ)처럼 원인의 의미로 확장하는 경우에 요구되기도 한다.

한편 처소와 관련되지 않는 '에' 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7) ㄱ. 철수는 국제정세에 밝다.
ㄱ'. *철수는 밝다.
ㄴ. 유자차가 감기에 좋다.
ㄴ'. *유자차가 좋다.
ㄷ. 노시인은 시를 연애편지에 비유했다.
ㄷ'. *노시인은 시를 비유했다.

(7)은 부사어를 소거할 시 문장이 어색해지는데 이들 부사어는 앞에서의 처소와는 의미적으로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속성이나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에' 형과 형태·의미적으로나 관련이 있는 부사격조사에는 '에게/에서' 등이 있다. '에게'의 경우 '에'와 명사의 [유정성]과 [무정성]에 의한 의미 자질에 따라 교체된다.

(8) ㄱ. 철수는 꽃밭에 물을 주었다.
ㄱ'. 철수는 영희에게 물을 주었다.
ㄴ. 철수는 거짓말에 넘어갔다.
ㄴ'. 철수는 영희에게 넘어갔다.

'에서' 역시 '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의미인 처소와 관련이 있거나 비교의 의

미에도 쓰인다.

(9) ㄱ.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ㄴ. 아버지는 평사원에서 사장이 되셨다.
ㄷ. 통합관제센터에서[21] 알려드립니다.
ㄹ. 신라면이 맛에서 제일이다.

3.2.2. '와/과' 형

체언에 '와/과' 격조사가 결합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필수 부사어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서술어가 둘 이상의 대상이 참여해야만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0) ㄱ. 어머니는 나를 동생과 비교했다.
ㄴ. 나는 선생님과 의논했다.
ㄷ. 볍씨가 쌀과 섞였다.
ㄹ. 철수는 영희와 맞서면 안 된다.
ㅁ. 철수가 영희와 결혼한다.

(11) ㄱ. 어머니는 나를 동생과 비교했다.
ㄴ. 어머니는 우리를 비교했다.

하지만 이것은 동사에 의해 부사어가 의미론적으로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예컨대 주어의 속성이 단일한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11ㄴ)에서 보듯 부사어가 없이도 문장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이홍식(1999)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장 구조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주어와 부사어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고, 둘 중의 하나를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문장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하여

21) 단체를 나타내는 주어의 표시 '에서'일 수도 있다.

문장구조의 차원에서만 둘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통사론적으로 서술어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홍식(1999:154-155)은 의미상으로 필수적인 '와/과' 성분과 수의적인 '와/과' 성분의 차이를 밝혔는데, 주어나 목적어에 복수성이 표현될 경우 '와/과' 성분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12) 이홍식(1999:153-154) 예문
ㄱ. 철수와 영희가 닮았다.
ㄱ'. 영희가 철수와 닮았다.
ㄴ. 철수와 영희가 집에 갔다.
ㄴ'. 영희가 철수와 집에 갔다.

(12ㄱ, ㄴ)는 각각 (12ㄱ', ㄴ')와 대응되는데 필수적인 '와/과' 성분과 수의적인 '와/과' 성분이 명사를 병렬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공유하긴 하지만 의미상의 동일함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사적으로 동일한 구조라고 상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와/과' 조사 자체만으로는 어떤 성분의 필수성을 결정할 수 없고, 다만 서술어의 특성이나 부사어를 제외한 나머지 논항들의 속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3. '(으)로' 형

'(으)로'의 '방향', '자격', '원인이나 이유', '변성', '행위의 재료나 도구 및 수단'[22) 등의 다양한 의미로 기능한다. 우선은 '방향'의 기능을 하는 예부터 보도록 하겠다. '방향'의 의미로 쓰일 때 앞서 다룬 '에' 형과 유사한 예를 보이리라 예측

22) 행위의 재료나 도구 및 수단으로서의 '(으)로'는 필수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홍식(1999)를 참고. 다만 이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당수는 5.4.1을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가능하지만, 이홍식(1999:162)의 예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 이홍식(1999:162) 예문
ㄱ. 철수는 학교에 갔다.
ㄱ'. 철수는 학교로 갔다.
ㄴ. *철수는 학교 방향에 갔다.
ㄴ'. 철수는 학교 방향으로 갔다.

(13ㄱ)과 (13ㄱ')은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지만 (13ㄴ)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에' 형은 특정한 처소를 표현할 뿐이고 방향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에' 성분이 [도착점] 등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동이라는 행위가 처소와 관련을 맺기 때문이고, '(으)로'는 방향성을 조사 자체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2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으)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은 주로 '변성'이나 '선출', '특정 자격'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14) ㄱ.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였다.
ㄴ. 뽕밭이 바다로 바뀌었다.
ㄷ. 선생님은 철수를 반장으로 지목했다.
ㄹ.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ㅁ.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
ㅂ. 철수는 영희를 자식으로 여겼다.

그러나 (14ㄱ-ㄴ)의 '변하다, 바뀌다, 변모하다' 등의 동사에 '(으)로'가 항상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이홍식(1999)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으)로'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병규(1995)는 도달점의 '(으)로' 성분을 논항으로 간주하는데, 그 중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분포를 보이는 것들을 잠재 논항이라 부른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속성

적 잠재논항'이라고 한다. 이는 '바뀌다, 변하다, 변모하다' 등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으)로' 성분이 선행하는 명사의 '속성'으로 해석될 경우에 논항 자리에 결속되는 명사구가 문장 구조에서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홍식 1999:164).

(15) 이홍식(1999:165) 예문
ㄱ. 모든 대행물이 곧 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ㄱ'. *모든 대행물이 곧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ㄴ. 기쁨은 참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했다.
ㄴ'. *기쁨은 변했다.
ㄷ.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ㄷ'.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홍식(1999)은 '(으)로'가 숨겨질 수 없는 경우는 '변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여 '(으)로'의 기능이 서술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필수성과 수의성이 가려진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15)의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 출현해야 한다.

3.2.4. 기타

이 절에서는 다른 형태의 조사가 결합하는 예를 들겠다.

(16) 선지성(2005:49) 예문
ㄱ. 내 친구 중에 꼭 원숭이처럼/같이 생긴 녀석이 있어.
ㄴ. 어린애처럼/같이 행동하지 마라.
ㄷ. 그 애는 나를 제 엄마처럼/같이 생각하고 따랐다.

선지성(2005)에 의하면 '처럼/같이'의 경우 판단동사, 태도동사 및 상태동사 '생기다'와 주로 결합한다. 한편 유현경(2005)에서는 '-게' 부사절이 변성동사,

인지동사, 생성동사, 태도동사 등의 부류에서 'NP+로'나 'NP+처럼' 등의 부사구로 대치가 가능하다고 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용언과 결합하는 '-게'와 명사구에 부착되는 이러한 조사들은 선행하는 성분의 문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현경(2005)의 주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3.3. 일반부사

필수 부사어 가운데는 말 그대로 품사가 부사인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17) ㄱ. 부모님은 <u>잘</u> 지내시지?
ㄴ. 그 책은 <u>널리</u> 읽힌다.
ㄷ. 남은 돈을 <u>다</u> 썼다.

(17ㄱ-ㄷ)에서의 '잘', '널리', '다'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부사어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 부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이다. '잘'과 결합된 동사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지만 본고에서는 한 단위로 굳어진 경우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이제 '잘'이 들어가 구성된 구문 중 방식부사의 '잘'을 더 보도록 하자.

(18) ㄱ. 하는 일은 <u>잘</u> 되어갑니까?
ㄴ. 철수는 영희랑 <u>잘</u> 산다더라.
ㄷ. 새로 온 신입생에게 <u>잘</u> 해주세요.

선지성(2005:44)에서는 방식부사의 '잘'이 쓰인 구문의 부정은 (18)에서 '안' 내지 '못'으로 대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때 부정 부사어 역시 필수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단형 부정의 부사어는 가능하지만, 장형 부정으로 대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이며, 이것은 '잘'이 쓰인 (18)의 구문들 속 동사가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였다.[23] 본고에서도 (19)를 통해 장형 부정으로 구성되지 않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19) ㄱ. *하는 일은 되어가지 않니?
ㄴ. *철수는 영희하고 살지 못한다더라.[24]
ㄷ. *새로 온 신입생에게 해주지 못했다.

한편 임준서·심봉섭(2000)은 '적정부사'와 '숙어부사'를 도입하였는데, 소위 상징 부사들이 동사와 얽혀 비유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거나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이다.[25]

(20) ㄱ. 그 친구, 그 방면으론 머리가 팽팽 돌아가.
ㄴ. 시장에서 사온 물고기들이 아직도 팔딱팔딱 뛴다.
ㄷ. 어머니는 내 결혼 무산 소식에 펄쩍 뛰셨다.
ㄹ. 철수 있잖아, 온갖 도움을 다 받고 난 후엔 입을 싹 씻더군.

지금까지 필수 부사어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였다. 예로 제시한 것은 필수 부사어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실현형태에 있어서는 수의적인 부사어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수 부사어의 성립은 특정 동사 부류에 따라 선택되는 것 같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장에서 필수 부사어의 형태나

23) 그런데 '잘'과 관련하여 '잘되다', '잘살다', '잘하다' 등은 어휘화되어 사전에 등재된 목록도 있다. 어휘화가 되었다면 응당 소거될 수 없을 것이다. '잘' 또는 '못'과 관련한 필수성의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24) 언뜻 보면, 문장 구성은 가능해 보이나 (19ㄴ)의 단순한 부정을 초점으로 맞추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명확히 다르다.

25)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20)의 부사어들을 소거했을 시 비문이 되는지를 문의하였다. 화자들마다 수용성의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20ㄷ-ㄹ)의 경우엔 문법성을 잃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20)의 구성이 부사어와 서술어가 관용구성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구성을 해체하면 그 수용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용례를 제시한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동사 부류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장을 옮겨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동사를 유형별로 나누고 각 부류들이 어떤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3.4. 소결

필수 부사어는 일반의 부사어와 유사하게 실현된다. 크게는 용언의 활용형, 조사결합형, 일반부사 등으로 실현된다. 용언의 활용형의 경우 '-게', '-아/어' 형이 있다. '-게' 형은 폭넓은 용례를 보여주지만 '-아/어'의 경우 피동형의 일부 정도에 결합하는 제한적 쓰임을 보인다. 용언의 관형사절과 의존 명사가 합쳐서 부사어를 이루는 예에는 '-ㄴ/ㄹ 듯(이)', '-ㄴ/ㄹ 척', '-ㄴ/ㄹ 양' 등이 있다.

조사결합형에는 '에' 형, '와/과'형, '(으)로' 형, '처럼/같이' 등이 있다. 먼저 '에' 형의 경우 처소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서술어의 의미론적 속성이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 처소의 의미가 확대되어 추상적인 시간이나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후자는 주로 명사의 속성이나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때 등장한다. '에' 형과 형태·의미론적으로 관계가 있는 조사결합형에는 '에게'와 '에서'가 있다.

'와/과'형은 일반적으로 필수 부사어에 들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서술어가 의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을 요구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으)로' 형은 '방향', '자격', '원인이나 이유', '변성', '행위의 재료나 도구 및 수단' 등의 다양한 의미로 기능하지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방향'이나 '변성', '선출', '자격'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뀌다, 변하다, 변모하다'의 등의 동사에서 부사어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변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만 가능하여 '(으)로'의 기능이 서술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필수성과 수의성이 가려진다.

한편 부사가 필수 부사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잘’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적정부사’나 ‘숙어부사’의 경우 부사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에/에서/에게’ 형과 ‘와/과’형은 기존의 문법서에서 논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서정수(1994), 이홍식(1999), 선지성(2005) 등). 그러나 용언의 활용형의 형태 역시 논항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4장에서 다룰 것이다. 한편 일반 부사 등 논항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필수 부사어에 대한 설명도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5장에서 다룰 것이다.

4. 필수 부사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

이 장에서 다루게 될 필수 부사어는 모두 논항, 정확히는 의미론적 논항이 된다. 유형선(1999), 이은섭(2006) 등은 본고에서 논항으로 인정하는 성분들을 논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GB 이론에 따라 논항에만 의미역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성분은 의미역 목록 중 어느 것과도 부합하는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역 목록은 연구자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는, 다시 말해 확정된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유형선(1999), 이은섭(2006) 등은 논항이라면 의사분열문화가 가능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논항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는 핵 개념과 함수자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2003)에서는 '논항성 부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부사어가 논항성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논항성 부사'의 실현 양상이 다른 '일반적인 논항'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4.1. 필수적 논항인 부사어의 처리

부사어에 해당하는 언어요소가 그 자체로 핵과 논항이나 핵과 보어 혹은 보충어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의는 임홍빈(1999:34)과 이익섭(2003:164) 등에서 주장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McConnell-Ginet(1982)에서는 부사어와 결합한 동사들을 위해 IV/AD-V나 TV/AD-V의 범주를 마련하였다.

(1) ㄱ. John behaved {*∅, rudely} to Martin.
ㄴ. Most of the people treated Jill {*∅, rudely}.

한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의 문장의 부사 rudely는 문장 내 서술어의 의미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 요구되는 언어 요소들이다. McConnell-Ginet(1982)은

이런 동사들을 위해 하위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예컨대 'behave' 등의 자동사는 IV/AD-V의 범주를, 'treat' 등의 타동사는 TV/AD-V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사 AD-V가 동사의 다른 논항들과 결합하기 이전에 먼저 동사와 의미적으로 우선하여 결합한다는 것이다. 국어에서는 통사적으로도 필수 부사어가 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동사이긴 하지만 부사와 결합하여 일반적인 동사구의 핵이 되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26)

본고는 McConnell-Ginet(1982)의 설명방식인 'behave', 'treat'은 의미론적 논항으로서 'rudely'를 요구한다고 보고 'behave rudely', 'treat rudely'가 핵이 되어 나머지 논항인 'to martin', 'jill' 등을 요구한다고 보는 것을 제안한다. 'behave, treat'과 같은 동사는 의미 내역이 완전하지 못한 함수자로서 의미론적인 논항을 요구한 후에, 자립성을 가지거나 핵이 되는 것이다.

Larson(1988)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있다. 양태부사가 외부논항이 아니라 동사구 내부에 실현되는 걸로 제안하고, 의미역 위계를 행동주 > 대상 > 목표 > 사격(양태, 시간 등) 으로 설정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양태부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사어가 부가어로 실현되는 언어적 사실과는 맞지 않다. 또한 의미적으로 결여된 듯한 'behave, treat'가 단독으로 의미역을 부과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Larson(1988)의 문제의식만 공유하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고가 말하고자 하는 논항에 대해 정리해 보자. 4장에서의 논항이란 논리 형태상 동사구의 내부에 있어, 서술어의 의미를 완벽히 메우기 위한 부사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동사가 다른 논항들과 결합하기 전에 선점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논항이 채워진 함수자 핵은 나머지 통사론적 논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자와 핵이 일치할 때의 의미론적 논항

26) Alexiadou(1997)에서는 부사를 두 층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자는 기능범주투사의 지정어로서의 분석이고 후자는 부사가 동사구 안에 포함이 되는 분석이다. 후자의 입장을 따르면 부사는 동사의 보충어여야만 한다. 이러한 동사구 내에서 생성되는 부사어로는 양태 부사, 방향 부사, 상 부사 등이 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어에서 이들은 동사에 합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은 동시에 통사론적 논항으로도 가능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굴다', '생기다', '여기다', '삼다' 등은 여타의 일반 동사가 단독으로 가지는 의미내역의 완전성에 비해 그 자립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분열문의 방식을 가져와 예를 들어 보이겠다.

(2) ㄱ. 철수는 영희를 죽였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한 것은 죽인 것이다.
ㄷ. 개가 철수를 물었다.
ㄹ. 개가 철수에게 한 것은 문 것이다.

(3) ㄱ. 철수는 귀엽게 생겼다.
ㄴ. *철수가 귀엽게 한 것은 생긴 것이다.
ㄷ. 철수가 영희에게 귀찮게 군다.
ㄹ. *철수가 영희에게 귀찮게 한 것은 군 것이다.

(4) ㄱ. *철수가 영희를 굴다.
ㄴ. *철수가 생겼다.

(2)에 비해 (3)은 문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부사어를 소거한 (3ㄴ,ㄹ)은 아예 문장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생기다', '굴다'라는 동사가 그 자체만으로 핵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며 이러한 현상은 (3)의 동사들이 특정 부사어와 결합하였을 때 완전한 동사의 의미내역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론적 논항이 우선적으로 핵과 결합한다는 사실을 의미론적 논항에 해당하는 것들의 어순이 제약된다는 점과 후치 불가능성을 들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어에서는 통사적으로 필수 부사어가 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의미론적 논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의미론적 논항의 위치에 있는 성분들은 일반적인 논항에 비해 어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

음의 예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5) ㄱ. *영희는 귀찮게 철수가 영희를 굴었다.
ㄱ'. ?철수는 귀찮게 영희를 굴었다.
ㄴ. *예쁘게 영희는 생겼다.
ㄷ. *바보로 영희는 철수를 여겼다.
ㄷ'. ?영희는 바보로 철수를 여겼다.
ㄹ. *사위로 영희는 철수를 삼았다.
ㄹ'. ?영희는 사위로 철수를 삼았다.

(6) ㄱ. *철수가 영희를 굴었다, 귀찮게.
ㄴ. *영희가 생겼다, 예쁘게.
ㄷ. *영희는 철수를 여긴다, 바보로.
ㄹ. *영희는 철수를 삼았다, 사위로.

(5)의 예문에서 보듯 의미론적 논항에 해당하는 부사어들의 어순이 자유롭지 못하고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현상은 그만큼 동사와 부사어가 서로 의존하는 성격이 다른 논항들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6) 역시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적 표현을 노린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통사적으로 부사어가 문장의 끝에 후치될 수 없다.

의미론적 논항이 동사에 결합되어 완전한 핵이 된다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의미론적 논항을 직접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이윤하(2007)에서는 특정 부사어가 구성의 핵이 되어 그 내부 요소에 보충어 자격을 부여하였다. 여기서의 '보충어'란 수식 구성의 수식어를 대치하는 용어로, 혹은 조사구의 선행 명사구나 어미구의 선행 요소를 이르는 용어로 제약된다(이윤하 2007:80). 이는 보충어의 개념을 'Completment'가 아닌 'Suppletment'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본고의 입장과 다르다. 이윤하(2007)은 용언의 어휘적 특성에 있어, 예컨대 '굴-'에 선행하는 요소들이 동사의 수식의 요소로 기능한다고 보

고 있다. 동사의 의미자립성이 떨어져 선행 요소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인식은 동일하지만 본고에서는 온전한 핵이 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하는 논항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와 해석 방향을 달리 가지는 것이다.

이윤하(2007)은 보어[27]와 보충어의 개념을 따로 떼어낸 후 필수 보충어와 수의 보충어를 나누어 필수 부사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보충어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힌 측면이 있다. 또한 '수식'으로 설명되는 성분들을 보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로 '직관'에 의존하는 측면이 커 논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

한편 비교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호승(2003:22-23)에서의 [명사+조사+동사] 복합 서술어 구성이 본고의 주장과 유사하다. 복합 서술어 구성은 통사론적인 구조를 지니되 형태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위처럼 기능한다. 그의 예문을 들어 보겠다.

(7) ㄱ. 그는 매달 월세를 주기로 주인과 계약을 했다.
ㄴ. 소대장은 후퇴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 '내리-'는 각각 두 자리 서술어와 세 자리 서술어이지만 각각 '계약내용'과 '명령내용'이라는 논항을 더 취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이 되는 것은 동사 '하-'나 '내리-'가 아니라 '계약을 하-', '명령을 내-'이다. 이렇듯 선행 명사의 논항이 명사구 바깥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설명 방식은 본고에서 동사 '굴-'의 의미론적인 논항으로 '귀찮게'를 충족한 연후에 '귀찮게 굴다'가 마치 하나의 핵이 되어 외부 논항으로 주어와 목적어 등의 성분을 요구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27) 이윤하(2007:80)에서는 '보어'를 용언의 논항 구조와 관련하는 성분에 붙이는 용어로 한정하였다.

4.2. 필수 부사어와 불완전동사

이미 서정수(1994)에서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28]를 '불완전동사'라 정의한 후 이를 자동사류와 타동사류로 나누고 동사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목록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하여 '명사+조사'의 형태를 보어가 아닌 부사어로 취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필수 부사어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요구하는 동사들은 불완전동사가 된다. 또 소략하게나마 한송화(1991)에서도 불완전풀이씨에 해당하는 목록을 제시하였다. 일단은 그들의 목록을 가져와 불완전동사라고 불리는 부류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8) 서정수(1994)에서 제시한 불완전 동사의 구분

ㄱ. 불완전 자동사류

1) 되다 따위 : 되다

2) 싸우다, 맞서다 따위 : 혼인하다, 마주치다, 부닥치다, 맞닥뜨리다, 다투다, 겨루다, 시합하다, 의논하다, 언쟁하다, 경쟁하다, 씨름하다, 연애하다, 공모하다, 결합하다, 화합하다, 단합하다

3) 머물다, 들다 따위 : 머뭇거리다, 닿다, 미치다, 이르다, 다다르다, 덤비다, 지다(負), 기대다, 붙다, 덧붙다, 가다붙다, 얼른거리다, 나타나다

4) 이동 동사 따위

ⅰ) 들다, 접어들다, 스며들다, 스미다, 뛰어들다, 드나들다, 나가다, 치닫다, 내닫다, 다가가다, 다가오다, 옮다, 옮아가다

ⅱ) 떠나다, 내리다, 솟다, 치솟다, 날다, 뜨다, 흐르다, 사라지다, 비키다, 뛰다, 걷다, 달리다

---

28) 유현경(2005)나 이윤하(2007)에서는 보조 동사 구성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와 흡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보조 동사와 일반적인 동사는 그 역할이 다르고 그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통사적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장에서 다루는 동사는 의미적 자립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어휘적 의미가 있고 논항구조로써 자신의 논항을 하위범주화한다. 그러나 보조동사 구성에서의 보조동사는 본동사가 없이는 문장에 출현할 수 없다는 점과 자신이 단독으로 논항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조동사 구문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이 별개의 구문이라는 점은 유현경(2005) 참고.

iii) 가다, 오다, 다니다, 오르다, 모이다, 다가서다, 다가오다, 잠기다
iv) 이르다, 미치다, 다다르다
v) 자라다, 오그리다, 펴다 변하다, 바꾸다, 나누다, 고치다, 꼬부리할려다, 벌리다, 오므리다, 굽다, 뻗다
5) 생기다, 굴다 따위 : 생기다, 굴다

ㄴ. 불완전 타동사류
1) 삼다, 여기다 따위 : 삼다, 여기다, 간주하다, 치다
2) 만들다 따위 : 만들다, 뽑다, 선출하다, 바꾸다, 갈다
3) 두다, 놓다 따위 : 두다, 놓다, 얹다, 간직하다, 걸다, 달다, 새기다, 담다, 붓다, 줄치다, 줄서다, 그리다

(9) 한송화(1991)에서 제시한 불완전 동사의 구분
ㄱ. [NP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풀이씨 : 되다, 아니다와 심리용언
ㄴ. [NP에]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풀이씨 : 불과하다, 불구하다, 비하다, 관하다, 대하다, 의하다
ㄷ. [NP로]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풀이씨 : 되다, 보이다, 생기다, 굴다, 단언동사
ㄹ. [NP와]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풀이씨 : 같다
ㅁ. [AP(A-게)]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풀이씨 : 되다, 보이다, 생기다, 굴다, 단언동사
ㅂ. [VP(V-게/-고/-어야/-어도]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풀이씨 : 되다, 하다, 생기다, 싶다
ㅅ. [ADP]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풀이씨 : 되다, 생기다

국어에서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많지 않다고 하나, 목록 각각을 보면 하나같이 빈도가 높은 서술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정수(1994)에서는 (8)과 같은 동사에 부사어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필수 부사어와 서술어 계열관계와 결합관계에 주목한 듯하다. 한송화(1991)에서는 (9)와 같은 목록을

불완전동사로서 제시하였는데 선행하는 성분이 부사어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러 범주가 중첩되는 동사들도 있는 듯하다. 이는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동사 일방에만 있거나 부사어가 핵으로서 특정의 동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은섭(2006)에서는 '굴-'과 같은 유형의 서술어는 의미론적으로 모호하고 상황 의존적이어서 의미역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논항의 자격을 부여받지는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보충어의 자격을 가지게 됨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이것은 필수 부사어라는 성분에 일률적으로 논항의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이고, 동시에 일률적으로 필수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8)에서 제시된 목록을 들여다보면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들 간의 층위가 일치하지 않는 예들도 보이고 4.1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들은 의미론적인 논항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예들도 보인다.

(10) ㄱ. 싸우다, 맞서다 따위 : 철수가 혼인했다.
ㄴ. 머물다, 들다 따위 : i) *철수가 이르렀다.
ii) 물가가 치솟다.
ㄷ. 이동 동사 따위 : i) 물방울이 스며들다.
ii) 선생님이 떠나셨다.
ㄹ. 생기다, 굴다 따위 : i) *철수는 생겼다.
ii) *철수는 굴었다.
ㅁ. 삼다, 여기다 따위 : i) *철수는 영희를 삼았다.
ii) *철수는 영희를 여겼다.
ㅂ. 두다, 놓다 따위 : ?나는 책을 두었다.

(10)은 서정수(1994)의 목록 중 일부를 추출한 후 부사어를 넣지 않은 예문을 만들어본 것이다. 불완전동사로서 부사어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10ㄱ-ㅂ)의 수용성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0ㄹ,ㅁ)는 확실히 부사어를 요구하는 성격의 서술어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10ㄱ,ㄴ,ㄷ,ㅂ)는 문장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굴다/생기다'류, '삼다/여기다'류 등은 서술어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의 완성도가 나머지 불완전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들이 가진 고유한 의미적 특성을 따로 추출해 서술해 본다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 유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불완전 자동사의 '굴다/생기다', 그리고 불완전 타동사의 '삼다/여기다'를 자·타동사의 구분 없이 각각 따로 떼어내 기술하겠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목적어를 취하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되는데 목적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은 본고의 직접적인 논의와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본고는 '굴다, 생기다, 삼다, 여기다'가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 내적 특성과 더불어 이들이 취하는 논항인 부사어가 어떤 의미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4.2.1. '굴다' 류

'굴다'는 대상에 대한 주어의 태도를 실현하는 태도 동사의 범주에 든다. 이러한 유형에는 '굴다' 외에도 '하다', '행동하다', '반응하다'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며 실현된 부사어는 대체로 관점, 방식, 양태(manner) 등의 해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11) ㄱ. 옆집 꼬마가 할머니에게 버릇없게 군다.
ㄴ. 너 왜 자꾸 따라와서 귀찮게 하니?
ㄷ.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한다.
ㄹ. 철수는 외모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해.

태도 유형의 동사들은 대개는 '-게' 형의 부사어로 실현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버릇없이' 또는 '철없이'처럼 '-이'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게', '-이' 형 부사어는 양태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류이기 때문에 태도를 보여주는 동사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굴다'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면

부사형 어미에 의한 부사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처럼, 같이, 으로, 에게'가 통합한 조사구, 용언의 관형사형과 의존명사가 통합한 '-ㄴ/ㄹ 듯이, -ㄴ/ㄹ 양' 등 다양하게 실현된다.

함수자와 논항의 관계에 주목해볼 때 함수자 '굴-'은 의미론적 논항을 요구하며, 이와 결합해 완전한 핵의 기반을 갖춘 '굴-'이 통사론적 논항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부사어는 함수자의 의미론적 논항이자 함수자 핵의 투사(projection) 안에서 실현되므로, 통사론적으로도 논항이 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다음절에서 다루게 될 동사부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굴-'에 내재된 의미(sense)의 차이에 의해 논항구조가 새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12) ㄱ. 철수가 비겁하게 굴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귀찮게 굴다.

(13) ㄱ. 굴다1 : [N0 [AD-V 굴-]]vp
ㄴ. 굴다2 : [N0 [N1-에게 [AD-V 굴-]]]vp

(12ㄱ)은 행위자를 상정하고 행위자에 대한 행위방식을 표현하고, (12ㄴ)은 행위자가 행위를 받는 대상까지 상정하여, 사역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2. '생기다' 류

'생기다' 역시 의미(sense)에 따라서 부사어를 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14) ㄱ. 돈이 생기다.
ㄴ. 사실 문제가 생겼어.
ㄷ.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

(14)의 예에서의 ‘생기다’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상황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사어가 없어도 문장의 완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대상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라는 의미의 ‘생기다’라면 (15)에서처럼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15) ㄱ. 철수는 옷에 구멍이 생겼다.
ㄴ. 혹이 달걀 모양으로 생겼다.
ㄷ. 그 약은 사탕처럼 생겼다.

(15ㄴ)을 보자. 이미 ‘혹’이라는 존재가 전제되어있고, 이때 선행되는 부사어가 ‘어떠한’의 방식으로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상황에서는 소거가 불가능하다.[29] 이 점은 동사에 의미 확장이 일어날 때 또 다른 논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생기다’에는 한 자리 술어로서의 의항(sense)도 있지만, 동사 자체의 의미적 완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미론적 논항을 취하는 의미(sense)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받아들였을 때 ‘생기다’는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

(16) ㄱ. 생기다1: [N0이 생-]vp[30]
ㄴ. 생기다2: [N0이 [AD-V 생-]]vp

29) 이 외에도 ‘생기다’는 ‘-게 생기다’ 구성으로 가져 과거형/완료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생기다’는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말로, 보조 동사의 지위에 있어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그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ㄱ.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모양이다.
ㄴ. 은밀히 한 일이 발각되게 생겼다.
ㄷ. 일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30) (16ㄱ)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구문이라는 전제 하에 ‘-에/에게’의 논항이 상정될 수도 있다.

4.2.3. '삼다' 류

'삼다'와 더불어 '뽑다/선출하다', '지명하다' 등 특정 자격을 부여하거나 어떤 입장에 처해있음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요구한다.

(17) ㄱ.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로 삼다.
ㄴ. 우리는 그를 대장으로 뽑았다/선출했다.
ㄷ. 경찰은 철수를 범인으로 지명했다.

(18) 삼다 : [N0 [N1을 [AD-V 삼-]]]vp

이 유형의 동사들은 주로 '로' 결합형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다'의 경우 조사 '을/를'이 오거나 혹은 아예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럴 때 이것을 '삼다'에 대한 목적어로 볼 수 있겠는가.

(19) ㄱ.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를 삼다.
ㄱ' 철수는 영희를 며느리 삼다.
ㄴ. *우리는 그를 대장을 뽑았다/선출했다.
ㄷ. *경찰은 철수를 범인을 지명했다.

(19ㄱ)처럼 '삼다'의 경우에는 '며느리를'과 같은 '를' 조사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ㄴ-ㄷ)의 경우에는 '를'을 취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렇다면 '를'이 결합한 형태가 목적어인지 여부를 피동문을 구성하여 통사적 대응관계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0) *며느리가 삼아지다.

목적격 조사의 형태인 '를'과 결합은 했지만, 피동문을 구성하여 주격이 전환될

경우 비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의미의 '목적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9ㄴ,ㄷ)과 다르게 '를'을 취한다 하더라도 '며느리로'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19ㄱ')처럼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를'이 생략된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며느리로'의 의미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그런데 선지성(2005:51-52)은 '삼다'를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보고, 이것이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논항으로 취한다고 한 바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부류의 동사로 '변하다', '변모하다', '변화하다' 등을 묶어 '변화 동사'라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삼다', '뽑다/선출하다', '지명하다'가 '변하다' 등의 유형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는 있지만, 비자격 상태에서 모종의 자격을 부여받는 '삼다' 류를 상태의 변화로 보고, 따라서 결과 상태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면 '변하다' 등의 유형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21) 선지성(2005:51 예문 일부)
ㄱ. 얼굴색이 이유 없이 검게 변할 때는 간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ㄴ. 영희는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ㄷ. 구름이 검붉게 물들었다.
ㄹ. 이전의 논밭은 이제 아스팔트길로 변모하였다.

변화 동사로 분류된 이러한 동사는 부사형 어미 '-게'로 구성된 성분과 두루 결합하며, '로'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 같다.

한편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여기다'류와 '삼다'류는 선행하는 부사어에 일종의 자격역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차원에서 둘은 세부적으로 다르다. 동사에 한정해 본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을,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의 판단 내지 평가의 부사어를 요구한다.

(22) ㄱ. 철수가 영희를 제자로 삼은 순간부터 영희는 제자로서 공부를 시작했다.
ㄴ. */?철수가 영희를 제자로 여긴 순간부터 영희는 제자로서 공부를 시작했다.

(22)의 예문은 철수가 영희를 제자로 삼은 것과 철수의 영희를 제자로 여긴 것은 후행하는 절에 일정 부분의 제약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22ㄱ)의 '삼-'은 철수라는 주체뿐만 아니라 영희를 비롯한 외부의 대상들도 영희를 제자로 인정한다는 함의가 성립할 수 있지만, (22ㄴ)의 '여기-'는 그러한 함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여기-'에 선행하는 '로' 부사어는 대상의 속성을 주체의 내면적 인식의 차원에만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삼-'과는 이질적인 의미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은섭(2008)에서는 '삼-'과 '여기-' 구문의 '로' 부사어가 기본적으로는 두 동사의 행위 표상에 기여하는 성분이지만 '삼-'에 선행하는 부사어는 전적(全的) 변성의 양상을, '여기-'에 선행하는 부사어는 내적 변성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삼다'류와 '여기다'류를 묶어 설명할 경우 개념적 불투명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고의 방식대로 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2.4. '여기다' 류

'여기다'는 객체에 해당하는 성분에 대한 주어의 판단 내지 평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해당한다. '보다', '평가하다', '치부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대하다', '간주하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3) ㄱ. 나는 그 고아를 <u>불쌍히/불쌍하게</u> 여겼다/생각했다.
ㄴ. 장군은 이번 작전을 <u>성공적으로/높게</u> 평가했다.
ㄷ. 나는 그를 <u>없는 사람으로</u> 치부했다/쳤다.
ㄹ. 나는 그를 <u>좀도둑으로</u> 간주했다.

(24) 여기다 : [N0이 [N1을 [AD-V 여기-]]]vp

그런데 지각 동사 중에서는 본래 '지각'의 의미는 옅어지고, '판단'의 의미가 덧

붙어 '여기다' 류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지각 동사류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사실과는 다른 셈이다.

(25) ㄱ. 나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본다.
ㄴ. 내 말을 고깝게 듣지 말고 잘 새겨들으시오.
ㄷ.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수련(2013)에서는 '보다'를 대표로 하여 지각 동사가 인지 동사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사어와의 결합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 그는 시각 동사로서의 '보다'는 주로 척도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의 꾸밈을 받고, 인지 동사로서의 '보다'는 평가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고 보았다.

(26) ㄱ. 우리는 영국 사람을 신사로 본다.
ㄴ. 우리는 영국 사람을 ∅ 본다.
이수련(2013:105) 예문

(26ㄱ)의 동사 '보다'는 인지 동사로 기능한다. 하지만 (26ㄴ)의 경우에는 부사어 '신사로'가 생략됨으로써 시각 동사로도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ㄱ)에 해당할 때의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5ㄷ)에서처럼 지각동사가 피동형의 동사로 실현되는 일부 경우에도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다.[31] (27)을 통해 예를 더 들어보겠다.

(27) ㄱ. 안개가 없어서 산이 가깝게 보인다.

31)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각동사의 피동형뿐만 아니라 몇몇 타동사가 피동화될 때도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것 같다.
예) ㄱ. 그 책은 널리 읽힌다.
ㄴ. 물건이 잘 팔린다.
ㄷ. 그의 칩거는 연예계 은퇴로 받아들여졌다.

ㄴ. 보청기를 했더니 말소리가 잘 들린다.

(25ㄷ)과 (27)은 어떤 대상에 대해 느끼거나 보고나 듣는다는 점에서 지각 동사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능동형의 지각 동사와는 달리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동사의 의미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4.3. 소결

본장에서 강조하는 논항은 일차적으로 박진호(1994)의 함수자와 짝을 이루는 의미론적 논항이다. 의미론적 논항이 동사구의 내부에 있어, 서술어의 의미를 완벽히 메우기 위한 부사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사인 함수자가 요구하는 의미론적 논항은 바깥의 논항들과 결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결합한다. 그리고 함수자와 핵이 일치할 때의 의미론적 논항은 동시에 통사론적 논항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무 동사나 의미론적 논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성에도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불완전동사의 목록 중 동사 자체의 의미내역이 완전하지 못한 일부 함수자들은 의미론적 논항인 부사어와 결합한 후 핵의 기반을 마련해 외부의 논항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동사로 '굴다', '생기다', '삼다', '여기다' 등의 부류를 대표적으로 들었다.

한편 논항의 기준을 문장의 적격성이라고 한다면, 본고가 다룬 필수 부사어는 당연히 논항이 되고 4장에서의 논의는 결국엔 의미 없는 지적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장에서 다룬 부사어들은 여타의 논항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한국어에서의 논항이란 적절한 문맥이나 조건이 주어지거나 복원가능성이 전제될 때 생략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장에서의 부사어들은 그러한 조건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징을 달리한다. 이것은 외국어 화자의 한국어 교육이나 언어정보처리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의미·화용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및 동사

본장은 동사들의 의미내역은 완벽하지만 특정 맥락에서 단문의 명제 내용 이상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때 반드시 부사어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필수성이나 적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사론적인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었다. 의미론의 영역은 통사론과 화용론적 방법 모두에 걸쳐있다. 화용론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의미론적인 분석이 필수적이고 통사론적인 분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의미론적인 고려가 없을 수 없다.

한편 동일한 언어현상이 설명방식을 달리 요구한다는 것은 필수성의 성격이 다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필수 부사어 연구에서 의미·화용론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물론 논항이 의미론적인 개념을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긴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통사론적으로 실현이 되는가에 주목되어왔다. 본장에서 다룰 내용들은 논항성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논항성에 따른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거하고, 설명 가능한 부분에 한해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 부사어의 전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언어 현상에 대한 설명방식이 다르다면 응당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 필수 부사어와 정보구조

통사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부사어가 맥락이 고려되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그것이 초점, 즉 신정보이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5장에서 다룰 내용들은 정보구조(informative structure)에서 이들 성분이 '관계적 신정보'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구조[32)]는 Halliday(1967)에서 제안된 개념인데, 그에 따르면 정보구조는

‘주어진 것’과 ‘새로운 것’의 측면과 관련된 텍스트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프라그 학파에서 기능적 문장 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을 통해 테마(theme)와 레마(rheme)로 연구되어 왔던 것이다. 이들 주장의 기본 골격을 따르자면 문장은 대하여성(aboutness)에 의해 화제(topic)과 초점(focus)로 양분된다. 문장이 ‘무엇에 대해 어떻다고 말한다.’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화제는 문장에서 서술되는 ‘대상’이 되며 초점은 ‘문장의 서술내용이 어떻다’고 말하는 그 자체이다.

본고에서는 화제-초점의 용어와 그에 따른 정의를 채택하는 입장인데, 문장이 화제와 초점의 구성으로 양분된다면 화제는 문장의 서술 대상이 되며 초점은 문장의 서술 내용이 된다. 다시 말해 초점은 서술의 대상인 화제(구정보)에 대해 전달되는 새로운 정보 요소라 볼 수 있다.

구정보와 신정보는 주어짐성(giveness)에 의해 갈리게 되는데 Gundel & Fretheim(2004)에 따르면 관계적 주어짐성과 지시적 주어짐성이라는 두 층위를 가지게 된다.[33] 관계적 주어짐성에 주목하자면 전영철(2006)에서는 화제와 초점이 각각 관계적 구정보와 신정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구정보와 신정보

32) 정보구조에 대한 논의는 화제-초점의 관점 외에도 매우 풍부한 편이나, 그만큼 사용되는 술어와 정의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화제-평언(comment), 전제(presupposition)-초점, 바탕(ground)-초점 등이 그러하다. 화제-평언의 입장에서는 대하여성에 근거해 화제를 설정하고, 이와 상보적인 요소를 평언(비화제)이라 보는 입장이다. 전제-초점의 입장에서는 주어짐성에 근거해 새로운 정보로서의 제보적 기능을 하는 요소를 초점이라 하고, 이와 상보적인 요소를 전제로 보았다. 한편 바탕-초점은 주어짐성과 대하여성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입장이다. 우선 주어짐성에 근거해 바탕과 초점을 양분하고, 대하여성의 기준을 통해 바탕을 연결부(link)와 꼬리부(tail)로 나눈다.

33) 관계적 주어짐성과 지시적 주어짐성은 그 기제를 달리 하지만 전영철(2006:177)에 따르면 완전히 별개의 개념은 아니다. 그는 관계적 신·구정보와 지시적 신·구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able>
<tr><td colspan="2">관계적 구정보</td><td colspan="2">관계적 신정보</td></tr>
<tr><td colspan="3">지시적 구정보</td><td>지시적 신정보</td></tr>
</table>

한 문장 내지 담화 상에서 관계적으로 구정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담화 영역 내에 이미 지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적 구정보는 지시적 구정보를 함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역은 함의하지 않아서 지시적 구정보인 화제가 관계적으로 초점인 신정보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전영철(2006)의 견해를 따르도록 한다.

는 한 문장 내에서 서로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신정보와 구정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의 주어짐성은 관계적 주어짐성이 되는 것이다. 한편 지시적 주어짐성은 한 문장 내에서의 상대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명사구의 한정성 또는 특정성에 의한 표현들에 의한 것인데 담화참여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정보들이라면 지시적으로 구정보가 된다.

그런데 정보구조에 관한 논의들, 특히 초점의 경우에는 명사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들에 대해 집약된 것은 이들이 한국어의 정보구조를 아주 뚜렷하게 표현하는 표지로서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본고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들이 관계적 신정보의 위치를 가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청자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 자신의 정보 상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update)를 한다. 또 화자는 대화과정에서 청자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청자가 세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반드시 명사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궤에 들 수 있을지 다소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정택(2006)의 논의는 하나의 큰 시사점을 남긴다. 이정택(2006)에 의하면 인지언어학에서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때, 초점이 놓여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부분은 '모습(figure, 필수적으로 인식)'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바탕(ground, 수의적으로 인식)'으로 나뉜다. '모습'과 '바탕'의 구별은 인지의 초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인지 작용 과정에서 초점의 이동에 따라 '모습'과 '바탕'의 지위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의 위치가 관형어, 부사어 등에도 놓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들 성분 역시 필수 성분으로 인지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초점의 이동이 어떤 기제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본고에서는 관계적 신정보에 의한 '초점'이 정보성(informativeness)이 부가된 결과로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필수 부사어가 관계적 신정보로서 어떻게 나

타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34]

(1) ㄱ. 영희는 잘 지내지?
ㄴ. *영희는 지내지?

(2) ㄱ. 시험 잘 봤니?
ㄴ. ?시험 봤니?

(1)과 같은 예문은 '잘'을 소거시킬 경우에 아예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내다'라는 함수자가 요구하는 의미론적 논항의 자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2ㄴ)의 경우 문장 자체는 성립은 하지만, (2ㄱ)의 의미와는 달라진다.

만약 화자와 청자가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2ㄴ)은 문장 전체가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관계적 신정보로 기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개는 '시험'이 '보다'라는 관계에 있어 구정보가 되고, 서술되는 대상인 '시험'에 대하여 '보다'라는 서술내용은 관계적으로 신정보이자 초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특정 담화 상에서 시험을 응시한 것이 화자와 청자에게 당연히 공유되고 있는 사실이라면 이 문장은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정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다만 그 응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척도'나 '정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잘'은 서술 대상에 대한 서술 내용으로서의 초점이자 관계적 신정보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때의 '잘'은 특정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34) 부사어가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필수성을 획득하게 되는 예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ㄱ. 他来了?
ㄴ. 你什么时候来的?
ㄷ. お前 いつ来たの?

중국어에서 동사가 신정보일적 경우 동사 뒤에 '的'이 붙지 않지만 부사(어)가 신정보로 기능하는 (1ㄴ)의 예에서는 동사 뒤에 부사어 '的'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의 예로 제시한 (1ㄷ)에서의 'の' 역시 필수적인 성분이 된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가 어려워진다.

(2)에서 든 '잘'이 관계적으로 신정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화제(topic)와 초점(focus)을 판별하는 기준에는 거짓말 테스트(lie-test)라는 것이 있다(두임림 2013:32). 화제는 담화 상에서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 영역에 들지 못하지만 새로운 정보로서 추가되는 정보인 초점은 부정의 영역 안에 들 수 있다고 한다.

(3) ㄱ. Q: 시험 언제 봤어?
A: 어제 <u>시험을 봤어.</u>
(초점) (화제)
ㄴ. 거짓말 하지 마.

한 문장을 화제와 초점으로 양분하는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대상인 '시험을 보다'는 화제가 되고 서술되는 대상에 대한 내용 즉 구체적인 시점인 '어제'는 초점이 된다. 이때 부정의 영역이 화제가 아닌 초점에만 작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4)와 같은 예문은 어떠할까?

(4) (화·청자는 시험을 본 상황을 알고 있다.)
ㄱ. 시험을 잘 봤어.
ㄴ. 거짓말 하지 마.

우선 '시험을 보다'라는 명제 자체는 단일 사건이기 때문에 화제와 초점을 선뜻 양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 자체로는 특정한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ㄱ)과 같은 예문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잘'은 초점이 되며 이와 상보적인 부분인 '시험을 보다'는 화제가 된다. 따라서 화제인 '시험을 보다'에 대한 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시험을 보다'라는 하나의 화제가 화·청자간에 공유되고 있는 사실에 그칠 때가 아니다. '잘'이 초점으로서 화제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갱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목적이 필요 없는 ‘시험을 보다’라는 문장이 적형식으로 기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잘’이라는 성분은 생략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초점을 받는 관계적 신정보라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사어가 필수 부사어가 된다는 주장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3)에서는 질문쌍이 반드시 나오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초점이 나오는 반면에 (4)는 굳이 질문쌍을 도입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와 초점이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이 된다. 필수성의 여부에서도 (4)는 (3)에 비해 부사어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관계적 신정보가 되기는 하지만 필수성의 여부에 있어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과 필수 부사어는 양방의 함의를 가지지 않는다. 관계적 신정보가 모두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필수 부사어이면서 비논항인 경우엔 관계적 신정보일 개연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3)과 (4)의 차이는 화제가 되는 사건에 정보성이 어떤 방식으로 부가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화제가 되는 ‘시험을 보다’는 이미 전제된 하나의 사건(event)과 같다. 이런 사건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 있어 ‘어제’와 같은 시간적 요소들은 ‘시험을 보다’라는 화제의 바깥에서 시간적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초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제의 내부에 개입하지는 못 한다. 반면 (4)의 ‘잘’과 같은 요소는 그러한 화제 안에 직접 들어가 화제가 이루어진 ‘속성을 제한’해준다. 어순의 바꿈을 통해 동사와의 긴밀성을 따져볼 때도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5) ㄱ. 시험을 어제 봤어.

ㄴ. *잘 시험을 봤어.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부사어들 역시 화제의 내부에 직접 들어가 그것의 속성을 제한해준다.

5.2. 필수 부사어와 정보성의 부가

'잘'과 관련해 기술했던 특징들은 피동문의 유형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렇게 속성을 제한해 주면서 발생한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은 '정보성(informativeness)'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아래의 동사들은 의미내역은 완벽하지만 특정 담화 상황에서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때 반드시 부사어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6) ㄱ. 이 책은 널리 읽힌다.
ㄴ. 그 종이는 똑바로 잘린다.

(6)의 부사어는 생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생략되면 문장이 매우 어색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6)은 전부 피동문으로, 피동사는 서술어의 외부 논항인 주어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합가(valency)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읽히다', '잘리다'는 피동문의 주어만을 요구하는 서술어들이어서 각각의 문장에서 부사어를 제거하더라도 일단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6)의 부사어를 생략했을 때 문장이 어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Fellbaum(1985)이 소개한 '정보성(informativeness)'의 관점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Fellbaum(1985)에 의하면 (6)에서 부사어가 소거된 문장들은 특정 맥락 내지 화용론적 차원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6)을 통해 보자면 '책'이라는 명사의 속성은 본디부터 읽히는 것이다. '종이'의 경우에는 잘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항구적인 속성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것으로 'A란 (기본적으로) B 하는 것이다.' 정도의 함의 외에는 다른 뜻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6)의 예문들은 부사어가 빠진 피동문의 서술어는 주어의 속성을 제한해주지 못하는, 즉 청자에게 충분한 신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술어 본래의 결합가(valency)와 상관없이 '정

보성'으로 문장의 비문을 설명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ㄱ. 철수는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ㄴ. ?철수는 태어났다.
ㄷ. 사자는 6kg의 고기를 매일 섭취한다.
ㄹ. ?사자는 6kg의 고기를 섭취한다.

(7ㄱ,ㄴ)의 '태어나다'는 일반적으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그렇지만 (7ㄱ)의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철수가 태어난 사실이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전제된 상황이고, 관심이 되는 사항이 '외동아들로'라는 추가적 정보에 있다면 이는 삭제될 수 없다.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철수가 태어났다'라는 전제된 관계적 구정보에 대해 '외동아들로'가 관계적 신정보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7ㄷ,ㄹ)의 '섭취하다'는 일반적으로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7ㄹ)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빈도'라는 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7ㄹ)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런데 (7ㄴ, ㄹ)의 예문들은 관계적으로 이미 주어진 구정보에 해당하는 표지인 '은/는'이 주어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신정보와 구정보가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신정보에는 주격조사 '이/가'가 결합되고 구정보에는 보조사 '은/는'이 결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논항과 관련한 통사론적 접근으로 이들을 관찰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이런 정보가 없는, 다시 말해 관계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신정보의 표지가 붙는 경우에 필수 부사어가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8) ㄱ. 철수가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ㄴ. 철수가 태어났다.
ㄷ. 사자가 6kg의 고기를 매일 섭취한다.
ㄹ. 사자가 6kg의 고기를 섭취한다.

(8)의 비문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은/는'과 '이/가'가 담당하는 역할이 상충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가' 격표지가 있는 경우엔 그 문장성분이 초점으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부사어가 초점으로서의 필수성을 가진다고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ㄱ) 경우에는 화·청자 간에 '외동아들로 태어났다'는 정보가 구정보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8ㄴ)가 같은 문장이 (7ㄴ)에 비해 적형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5.3. 정보성의 작용 판별 - 대조집합 비교

앞서의 내용을 통해 이제는 어떤 성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에는 문맥적 고려가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용론적인 정보와 그에 따른 해석은 어디까지나 담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논항구조 등을 활용해 필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실 문맥적, 담화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이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담화·화용적 기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에 대한 규정이 이토록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의 언어 현상에 대해 화용론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판별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관계적 신정보의 위치를 차지하는 필수 부사어가 정보성에 따른 것이라 보므로 정보성이 어디까지 작용하는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9) ㄱ. 새로 출간된 책이 꽤 읽힌다.
ㄴ. 철수가 시험을 그럭저럭 봤다.
ㄷ. 그 종이는 똑바로 잘린다.

화용론적인 정보에 의해 '꽤'가 쓰임으로써 '책'이 '잘 읽힌다거나, 그럭저럭 읽힌다거나' 하는 대조 집합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잘 봤다거나, 그럭저럭 봤다거나' 하는 대조집합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부사어가 소거된 경우 그러한 대조집합을 상정할 수 없다.

서술어가 정보성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개입된 부사어는 주어의 속성을 제한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부사어의 유무에 의해 부정의 대조 집합을 상정했을 때 부정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10) ㄱ. 철수는 태어났다. → 철수가 안 태어났다.
ㄴ. 철수는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 철수가 외동아들로 안 태어났다.
ㄷ. 문이 열린다. → 문이 안 열린다.
ㄹ. 문이 잘 열린다. → 문이 잘 안 열린다.

정보성이라는 화용론적 원인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와 단순히 부사어가 소거된 문장은 대조 집합을 달리 가진다. (10ㄱ)은 '태어나다'라는 술어가 문장 내에서 실현되기 위한 통사적 구조가 위배되지 않은 문장이다. 여기서의 부정은 '철수가 태어났다'라는 명제의 단순한 부정만을 가진다. 서술어인 '태어나다'가 주어 '철수'의 속성을 특정 정보로써 제한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반면 (10ㄴ)은 '철수가 태어났다'라는 명제의 부정 이상의 것을 가진다. 더 정확히는 '외동아들로'라는 정보의 부정일 것이다. 가령 '철수가 차남으로 태어났다거나, 막내로 태어났다거나' 하는 대조 집합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화용론적으로 필수적인 부사어의 정보가 주어 '철수'의 속성을 서술어로부터 제한시킬 수 있게 함을 보여준다.

(10ㄷ-ㄹ)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10ㄷ)에서 '문이 열린다'라는 명제의 부정은 (10ㄹ)에서의 부정과는 다르다. (10ㄷ)처럼 문이 아예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빈도'나 '방식' 등의 차원에서 문이 열릴 수도 있음의 가능성을 대조집합으로서 가지고 있다.

5.4. 필수 부사어와 당연논항 요구 동사

5.4.1. 당연논항의 설정

Pustejovsky(1995)의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는 논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본고는 논항성을 따져보는 일을 본류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네 가지 분류 중 하나인 당연논항(default argument)은 5.2에서 다룬 것과 비교될 만하여 개념을 차용하도록 한다.

(11) Pustejovsky의 논항 분류
ㄱ. 참논항(ture argument): 어휘항목이 통사론적으로 실현된 정보
ㄴ. 당연논항(default argument): 특질구조(qualia) 내의 논리 표현에는 들어 있지만 반드시 통사론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는 논항후보
ㄷ.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 어휘항목에 의미론적으로 포함되는 논항후보[35]
ㄹ. 참부가어(true adjunct): 논리 표현을 수식하지만, 특정 어휘항목의 의미론적 표상에 매여 있지 않은 논항 후보

당연논항은 어떤 성분이 하위범주화틀에 의해 함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35) 박철우(2002)에 따르면 그림자 논항에는 소위 '동족목적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해당된다. 그림자 논항은 실제로 출현하지 않으면 어휘 층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문장 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당연논항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당연 논항과 구별되는 점은, 그림자 논항은 그 선택의 폭이 당연 논항보다 더욱 제한되어 있어서, 서술어가 표상하는 것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을 때에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조를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어의 의미가 하위유형으로 구체화되면 그림자 논항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된다.

ㄱ. 나는 어젯밤 새우잠을 잤다.
ㄴ. 그 아이는 헛울음을 울었다.

본고에서는 동족목적어의 실현 형태가 부사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정보가 특이해서 밝힐 만한 사항이 아니면 가장 무표적인 존재로서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논항이라 할 수 있다(박철우 2002:93). 논리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결합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 문장 내에 통사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국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2) ㄱ. 김순경은 수류탄 한 발을 들고 있었다.
ㄴ. 들다1: [AFF(x,y)[CS(x,[INCH[BY(y,[AT([[ths]-OF([x])])])])]]
(양정석 1992:374-375)

위 (12ㄱ)에서와 같이 쓰이는 동사 '들다'의 어휘의미구조는 양정석(1995)에 의하면 (12ㄴ)와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실제로 (12ㄱ)에서는 '[[손]-OF([x])]' 항이 실현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보이는 동사는 의미적으로 특정의 신체 부위, 특정의 재료, 특정의 도구와 관련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들을 신체 부위와 관련한 것들로만 대표적으로 제시해보겠다.

(13) 신체 부위와 관련된 당연 논항
(다리로) 걷다, (손으로) 던지다, (귀로) 듣다, (눈에) 띄다, (입으로) 말하다, (코로) 맡다, (어깨에) 메다, (입에/입으로) 물다, (머리로) 받다, (눈으로) 보다, (손에/손으로) 들다, (발에) 신다, (머리에) 쓰다, (손으로) 적다, (가슴에/가슴으로) 안다, (등에) 업다, (머리에) 이다, (몸에) 입다, (손으로) 건네다, (등에) 지다, (허리에) 차다, (발로) 차다 …

이렇듯 당연논항에 올 수 있는 어휘는 논리구조에 맞게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 본고는 당연논항의 위치에 있는 성분과 (13)의 예들이 수식(modifies)인지 보충(completes)인지 하는 개념적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을 내릴 상황에 있지 않다.[36] 다만 당연논항의 자리로 보이는 위치에 당연논항으

36) 박철우(2002)에서는 당연논항에 보충어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논항은 4.2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되지만 4.2에서는 부사어가 소거되면 문장의 성립 자체를 따지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로 상정될 수 없는 혹은 예상치 못한 성분이 특정 맥락에 오게 된다면 그때의 당연논항은 부사어로서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4) ㄱ. 글씨가 발로 쓴 것처럼 엉망이다.
ㄴ. 저런, 상관에게 왼손으로 경례하다니.
ㄷ. 인도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실례가 된다.
ㄹ. 기린은 (포식자의 위협에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 선 채로 잠을 잔다.
ㅁ. 너는 밥을 눈으로 먹니? 어서 먹어.
ㅂ. 철수는 어머니에게 있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었다.

(14)에서 밑줄 친 부사어들은 각 동사의 '(손으로) 쓰다', '(군대에서 오른손으로) 경례하다', '(인도 문화권 내에서 오른손으로) 먹다', '(누워서) 자다', '(입으로) 먹다', '(배로) 낳다'처럼 무표적으로 실현되어도 무방한 부사어(당연논항)들과는 다르게 문장 내에서 꼭 실현이 되어야만 한다.

5.4.2. 정보성과 당연논항의 차이

당연논항의 자리를 채우는 어휘(부사어)는 동사의 논리구조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 동사의 어휘의미의 틀에 함의되어 있는 항이기 때문에 그 논리구조를 크게 침해하는 의미의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상정될 수 없다. 다만 당연 논항의 논리구조를 벗어나는 경우엔 그 구조를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 필수적으로 논항을 선택해 밝혀야 한다. 반면 정보성을 위해 필수 부사어가 된 경우는 부사어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둘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당연논항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성분은 '보충'의 성격이 강하고, 정보성에 의한 성분은 특정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수식'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5.5. 소결

지금까지 논항으로 보기 어려운 부사어들이 문장 내에 필수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의미·화용론적 해석의 측면에 기대어 설명되는 부사어와 동사에 대한 것들이다. 서술어의 결합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맥락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는 부사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두 부류로 나누었다. 먼저 정보구조의 차원에서 관계적 신정보로서 부사어가 등장한다면 이는 논항이 아니어도 필수적이다. '정보성'을 부가 받게 된 동사들은 부사어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문법성의 차원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적 신정보로서 관심의 대상 내지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다음은 '당연논항'의 자리로 예상되는 위치에 당연논항으로 상정되기 어렵거나 특정 맥락에서 예상치 못한 성분으로 왔을 때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에 대해 기술하였다. 결합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 통사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는 '당연논항'과는 다르게 동사가 유표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들이 이에 속한다. 당연논항의 자리에 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문맥에 따라 유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의 부사어가 이에 해당해 문장 내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6. 결론

지금까지 필수 부사어의 발생 기제를 여러 차원으로 나누고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온당할지를 논의해 보았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을 필수적인 것과 수의적인 것으로 나누어 판단하려는 문법학자들의 오랜 노력과는 달리 이들을 문법적으로 구분할 만한 합리적이고 명백한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필수 부사어'라는 모순적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장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주성분과 부속성분의 핵심적 특성으로 '필수성'과 '수의성'이라는 개념을 세우는 일이 아주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필수성과 수의성의 분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류에 일정 부분 언중들의 직관이 크게 개입해 반영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필수성'과 '수의성', '논항'과 '비논항'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에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쪽으로 연구의 가닥을 잡았다. 그것은 수식 성분들 중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부사어들을 모아 그러한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들의 유형은 어떠한지, 어떤 설명방식을 요구하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2장에서는 우선 연구대상이 되는 필수 부사어와 관계된 일반적 사실과 언어현상을 다루었다. 부사와 부사어의 관계에서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부사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고, 필수 부사어의 필수성은 통사적인 필수성을 가지거나 의미적인 필수성 혹은 맥락화된 필수성을 가지는 등 단일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필수 부사어는 보충어적인 속성과 부가어적인 속성에 걸쳐져 있음도 보였다. 이러한 이질적인 성격의 필수 부사어 중 일부는 논항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리라 가정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에 정의되어온 논항에 대해 재검토 하였고 본고에서는 논항의 개념을 의미론적인 측면과 통사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가 받아들인 논항은 함수자에 대응되는 의미론적 논항과 핵에 대응되

는 통사론적 논항으로 구분된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필수 부사어’가 용언활용형, 조사결합형, 일반부사 등의 형태로 실현됨을 보였다. 그런데 이들의 실현 형태 자체로는 일반적인 부사어와의 차이점을 포착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필수 부사어의 성립은 특정 동사 부류에 따라 선택되는바 동사 부류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장과 3장을 통해 필수 부사어의 필수성에 대한 설명은 두 층위에 걸쳐져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필수 부사어는 특정 동사의 논항으로 기능하는 경우(4장)가 있고 논항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온전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5장)가 있었다.

4장에서는 필수 부사어와 동사 사이의 무게추를 후자에 가깝게 두었다. 본장에서의 필수 부사어는 논항으로 처리되며 여기서의 논항은 함수자와 짝을 이루는 의미론적 논항이다. 함수자이지만 핵으로서의 기반이 부족한 동사는 자신의 의미론적 논항을 채우면서 완전한 핵이 된다. 그러한 동사는 ‘불완전동사’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이들 목록에서 의미론적 논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 정도가 강한 동사들을 ‘굴다’ 류, ‘생기다’ 류, ‘삼다’ 류, ‘여기다’ 류로 설정하고 이들이 어떤 의미적 특성의 부사어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5장은 4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필수 부사어를 위해 할애된 장이다. 여기에 속하는 필수 부사어는 동사의 결합가(valency)를 채우기 위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필수 부사어가 소거되어도 문장의 적형성(well-formedness)을 훼손하지 않는, 다시 말해 통사적 차원에서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들 필수 부사어는 의미·화용론적 해석의 측면에 기대어 설명된다.

먼저 정보구조의 차원에서 관계적 신정보로서 부사어가 등장한다면 이는 논항이 아니어도 필수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적 신정보가 되는 부사어라고 해서 무조건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계적 신정보에는 정보성이 부가되는데, 그 정보성이 화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필수 부사어와 수의부사어로 갈리게 된다. 정보성의 작용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대조 집합의 성립을 들었다. 대조집합을 상정했을 때 부정되는 영역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부사어 외 성분의 속성을 제한해주는 성격에 따라 필수 부사어와 수의부사어가 구별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당연논항'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결합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 통사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는 '당연논항'과는 다르게 당연논항의 자리에 동사가 유표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들이 이에 속한다. 유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주로 특정 맥락이나 배경에서 예상치 못한 성분으로 출현할 때 생략이 불가능하였다.

본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필수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해서 필수적인 성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논항의 개념이 통사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이 혼용되어 쓰인 까닭이 매우 컸다. 본고에서는 논항의 개념을 통사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으로 정치하게 세분하여 필수 부사어를 위한 영역을 마련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정 부사어는 핵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논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또 기존 연구에서 통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필수 부사어를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들의 필수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하여 필수 부사어의 전모를 조금이라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에는 연구자의 역량이 부족해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문장의 적형성을 판단하기 위한 문장의 기본골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직관에 의존해 기술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직관 차이에 의해 특정 부사어가 정말로 필수성이나 논항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반문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항을 판별하는 기준인 소거, 대치, 대동사화, 환언 시험 등을 활용해 필수 부사어를 판별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문장의 통사적 완결성과 의미·화용적 완결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다. 통사적 완결성에 관련하여서는 의미역할의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의미·화용적 완결성에 있어서는 의미론적 층위와 화용론적 층위의 구분이 모호했으며 무엇보다 양자가 같은 층위에서 논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이들을 두루 보완한 더 좋은 후고를 기약하며 이만 논의를 맺는다.

참고문헌

고영근·구본관(2008),『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경훈(1996ㄱ),「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훈(1996ㄴ),「필수적 부사어와 임의적 부사어」, 서울산업대논문 43, 서울산업대학교, 493-501.

김동식(1993),「현대국어 동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량혜윤(2003),「부사와 부사구조」,『생성문법연구』13-3, 한국생성문법학회, 481-493.

김영희(2004),「논항의 판별 기준」,『한글』266, 한글학회, 139-167.

김혜영(2001),「논항구조와 의미역 관계 연구」,『영어영문학연구』27.2, 한국영어영문학회, 429-466.

남기심·고영근(1985),『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승호(2007),『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두임림(2014),「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 - 조사 '-이', '-는', '-으란', '-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성민(2009),「국어 필수 부사어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3),「한국어 동사구 수식부사와 사건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1994),「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철우(2002),「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의 판별 기준」,『언어학』34, 한국언어학회, 75-111.

박철우(2003),『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서정수(1994),『국어문법』, 뿌리 깊은 나무.

서태룡 외(1998),『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선지성(2005),「한국어 필수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향근·황화상(1998),「명사구(NP)+와' 논항의 의미역」,『어문논집』39, 민족어문학회, 452-471.

시정곤(1992),「국어 논항구조의 성격에 대하여」,『한국어문교육』6,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77-100.
신현숙(1981),「한국어 문장의 구성성분」,『선청어문』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13-226.
양정석(1992),「한국어 동사의 어휘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순조(1997),「'게'의 통합적 분석 - 문법적 기능, 통사 층위, 형태론적 지위」,『언어학』20, 한국언어학회, 227-262.
우형식(1996),「국어에서의 보충어 범위」,『배달말』21, 배달말학회, 29-74.
유현경(1994),「논항과 부가어」,『우리말글 연구』1, 우리말학회, 175-196.
유현경(2005),「부사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에 대한 연구」,『한국어학』29, 한국어학회, 159-185.
유현경(2011),「한국어 어말 어미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어문논집』46, 민족어문학회, 189-211.
유형선(1999),「보어에 관한 一考」,『한국어학』9, 한국어학회, 181-203.
유혜원(2004),「'N-로'를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 연구」,『한국어학』24, 한국어학회, 189-220.
이병규(1996),「문장 구성 성분의 항가 의존성 검토」,『국어 문법의 탐구』3, 173-215.
이상철(2006),「논항구조와 의미」,『언어연구』21.3,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349-368.
이선웅(2005),『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연구』, 월인.
이선웅(2010),「국어의 보어와 보격에 대하여」,『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779-804.
이선웅(2012),『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수련(2013),「동사 '보다'의 연구 -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65, 한민족어문학회, 89-113.
이윤하(2005),「'-(으)로' 조사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141, 국어국문학회, 133-169.

이윤하(2006ㄱ), 「문장성분, 논항 그리고 보어」, 『국어학논총』(이병근 선생 퇴임 기념), 371-427.
이윤하(2006ㄴ), 「어말어미 -게 구성의 통사·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1, 357-403.
이윤하(2007), 「부사(어)구 수식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50, 국어학회, 77-114.
이은섭(2006), 「굳다 구문의 유형과 통사 구조」, 『국어학』 48, 국어학회, 203-231.
이은섭(2008ㄱ), 「'삼-' 구문의 '로' 부사어의 문법과 의미」, 『비교문화연구』 12.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57-182.
이은섭(2008ㄴ), 「'여기-' 구문과 '삼-' 구문에서의 '로' 부사어의 통합적 의미역 할당」, 『2008년 개신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개신어문학회, 41-73.
이은섭(2011), 「보충어의 판별 문제와 어휘부 처리에 대한 시론」,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87-118.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이재성(1999), 「논항과 필수 논항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30·31 합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7-54.
이정택(2006), 「필수성과 수의성의 본질」,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243-266.
이종희(1991), 「부사형 어미 {-게}의 통어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승(2003), 「국어 복합 서술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홍식(1996),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語學硏究』 31-1, 서울대학교, 87-138.
임준서·심봉섭(2000), 「한국어 '숙어부사 구문'의 고찰」,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235-260.
임홍빈(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62.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임홍빈·이홍식 외(2002),『한국어 구문 분석 방법론』, 한국문화사.
임홍빈·장소원(1995),『국어문법론』 1,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전영철(2006),「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한글』 274, 한글학회, 171-200.
정유진(1995),「국어의 보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태구(2001),『논항구조와 영어 통사론』, 한국문화사.
최웅환(2013),「수식관계와 부가관계」,『언어과학연구』 66, 언어과학회, 279-300.
최현배(1937),『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최호철(1995),「국어의 보어에 대하여」,『한국어학』 2, 한국어학회, 447-490.
Ka, Lina.(2011),「현대 한국어 한자어 '別'의 문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송화(1991),「필수적으로 어찌말을 가지는 풀이씨의 범주화를 위한 소고」,『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 267-304.
허웅(1983),『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홍재성(1987),『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Alexiadou, A.(1997), *Adverb Placemen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Blake, B. J.(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Fellbaum, C.(1985), Adverbs in Agentless Actives and Passives, CLS 2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1-31.
Grimshaw, J.(1990),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Gundel, J. K. & T. Fretheim(2004), Topic and Focus, In horn, L. R. & G. Ward(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175-196.
Halliday, Michael A.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 MIT Press.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rson, R(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Larson, R(1990), Double Object Revisited: Peply to Jackendoff, Linguistic Inquiry 21, 589-623.

McConnell-Ginet(1982), Adverb and Logical Form, language 58, 144-184.

Pustejovsky, J.(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Cambridge.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emsdijk, H. van & Williams, E.(1986), Introduction to he Theory of Grammar, MIT Press.

Somers, H. L.(1987), Valency and Ca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Stroik, T.(1987), Path Theory and Argument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van Kampen, J.(2006), Subject and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In K. Brown(editor-in-chief). *The Encyclopedia of Langage and linguistics, 2nd ed, vol. 12*, Boston: Elsevier Science. 242-248.

Williams, E.(1994), Thematic Structure in Syntax, MIT Press.

<Abstract>

A Study on Syntax and Semantics of Obligatory Adverbial in Korean Language

Kim pu reun sol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obligatory adverbials' and to classify the type of the verbs requiring such obligatory adverbials. They make little contributions to sentence structure compared with other principal components. Nevertheless, there are times when adverbials are essentially required in order to complete the verb in the sentence. However, because adverbials with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internal single, they require each way to explain. In order to explain thi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major categories as follows:

First, the argument concept is isolated in pairs of 'functor−argument' and 'head−argument'. The former becomes a semantic argument, and the latter means a syntactic argument. Some verbs require adverbials as a semantic argument for filling the position of functors. Such verbs are classified into 'incomplete verb'.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required essentiality according to individual lexical properties. The essentiality is especially prominent in verb types such as '굴다(gulda)', '생기다(saenggida)', '삼다(samda)', and '여기다(yeogida)'. These verb types require external arguments by establishing a basis of the true head after filling the semantic argument as a functor than being the head separately.

Second, the obligatory adverbials treated as a non−argument are treated as 'relational new information' with the addition of the concept of 'informativeness'. There is no problem with grammaticality when they are not realized in the sentence because they are not required by the verbs. However, they are essentially requir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convey objects of interest or specific information. The action of the informativeness can be proved by the symbol of contrast sets. On the other hand, some verbs require obligatory adverbials of non−argument. Such verbs are found when it is difficult to assume a specific predicate as a 'default argument' in the position expected for it or they appear as an unexpected component in the specific context.

Key Words: obligatory adverbials, functor, semantic argument, head, syntactic argument, relational new information, default argument.

Student Number: 2013−20003